THE LIBRARIES
COLUMBIA UNIVERSITY

EAST ASIAN LIBRARY
KOREAN COLLECTION

F
3436
Y62

RARE
BOOK

Chips
6.1

# 李大鳳 傳 卷之全

十五兩七錢
十四兩
十四兩
五兩八錢
五兩
二十兩七錢
十兩
十三兩七錢
廿三兩五錢
廿六兩七錢
十六兩二錢
十二兩五錢
十四兩
二兩二錢
三兩二錢
兩錢五
二兩
兩錢
五兩
錢
七錢五
五兩
兩錢

李起民 五兩五錢
君先 五兩五錢
同元 五兩五錢
京賢 五兩五錢
鍾禹 五兩五錢
正浩 五兩五錢
啟漢 五兩五錢
永俊 五兩五錢 前 十二兩五錢
延玉 五兩五錢 又保錢二兩錢
達春 五兩五錢作 又保春六兩五錢 又 兩錢五
安永元 五兩五錢
林守吉 五兩五錢

[illegible]亭以帝亂美

剋念作聖景行維言

[illegible]

[illegible]一

金[illegible]三

一[illegible]奉[illegible]一

金[illegible]五

[illegible]一

[illegible]

林氏三一 金[illegible]四一

[illegible] 林[illegible]一

[illegible]春[illegible]一 [illegible]一

林春三[illegible]四

[illegible]九金春太 [illegible]

[illegible]一 [illegible]

[illegible]春[illegible] [illegible]

[illegible]三

本[illegible]

[illegible]十[illegible]會[illegible]

食後各持四錢十兩二戔五分式 걷이 모아 會于敬文家二兩

崔錫允（前契、七十兩）

林春三

咸春先

韓允化

林元三

金春成（前保錢 契一兩二戔五分）

韓順則

洪化先

林明化

金順日

晋昌云

安仁根

金善五

洪奉瑞

金永三

李正法

通文留置小舍 邑急〃히 돌니시옵소셔

水里洞

山 崔用三

李春起（前契不納錢五兩五戔罰五戔）

宋聖順

辛通被被賴蓋此
身髮髮貞烈效談
彼染染去而益詠存以
甘棠政攝職慎若美
業所基寔紙寵力
忠則盡命孝當竭
口嚴與敬資父事
君蘭寸陰是競尺
尺璧非寶福緣善慶
禍因惡積聲殷銀
漢虛堂習聽空谷
傳聲形端表正建
德建名立賢詩讚
剋念作聖景行維

---

師亨帝鳳
人皇從嚴皇濟農
制文字乃服衣裳
推位讓國讓伐
霜虞陶書書弔民
周發殷湯廉貢章
朝問道垂拱平
刻麗麗崑崗寐騰餘
善安昌善善益崑崗殷
奘納朝生菜重從詰庫根
善黃律飛嚴嚴山朵芥鹹
宇宙稱珍李柰師鳥殺

[illegible]稱[illegible]

[illegible]

推[illegible]讓[illegible]

[illegible]問[illegible]

[illegible]文字乃服衣裳

[illegible]皇[illegible]皇[illegible]

[illegible]李柰菜重芥

[illegible]河淡鱗潛羽[illegible]

---

恙羔羊墨悲絲染[illegible]

傳聲形[illegible]正[illegible]

[illegible]虛堂[illegible]

禍因惡積[illegible]

尺璧非寶[illegible]

[illegible]

忠則[illegible]命[illegible]

業所基[illegible]

甘棠[illegible]

[illegible]

四月六日 全文大數 [illegible]目

京畿道[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書[illegible] [illegible]

李大鳳傳

# 李大鳳傳

# 李大鳳傳

京畿道廣州郡退村面梧里洞

四續九斤

金英煥所有

뎌뎡셩화 연간에 긔슈쳔에 한 졔상이 나시되 셩은 이요 명은 낙이〻셰되공후 거족이요 쳐조광녹듸후 이용인의 후예로 이악이 일즉 용문에 올나 벼살리 이부시랑에 거ᄒᆞ야 명망이 조야에 진동하나 다만 슬ᄒᆞ에 혈육이 업셔 한탄ᄒᆞ더니 일〻ᄂᆞᆫ 시랑이 부인 양시로 더러 담화ᄒᆞᆯ ᄯᅢ 무조하믈 실허ᄒᆞᆯ 졔 홀현 시비 고ᄒᆞ되 외당에셔 엇던 노승이 와 노야계 뵈와지라 ᄒᆞ난니다 ᄒᆞ거늘 시랑이 즉시 외당에 나와 노승을 마즐ᄉᆡ 노승의 긔위 헌앙ᄒᆞ야 범승이 안일너라 노승이 비례ᄒᆞᆯᄉᆡ 시랑이 당에 ᄒᆞᆫ 사조단파 후에 문왈 되사ᄂᆞᆫ 워듸 ᄭᅦ시관듸 무슨 허믈을 이루고져 ᄒᆞ시리에 누지에 욕힝ᄒᆞ엿ᄂᆞ요 노승이 ᄃᆡ왈 소승은 금화산 쳔축사에 잇ᄉᆞ더니 졀리 퇴락ᄒᆞ와 즁슈코져 ᄒᆞ되 져

물의 부족ᄒᆞ믈 므리 맛당ᄒᆞ엿던 ᄯᅢ에 ᄃᆞᆺᄉᆞᄂᆞᆫ 죽산공긔 앙씨 덕션
을 조와ᄒᆞ시다 ᄒᆞ시고 ᄆᆡ일 ᄎᆞ자 ᄉᆞᆺᄉᆞ혹 산공 취보 취로서 쥬ᄒᆞ
양시긔을 부화 난니라 ᄒᆞ거ᄂᆞᆯ 공이 우연ᄒᆞᆫ 살 너나니 ᄂᆞᆯᄉᆡ이 가ᄡᆞ오
되압ᄒᆞᆫ 인도ᄒᆞ고 되믈이을 ᄌᆞ샤이 업셔 쳔영ᄒᆞᆫ 화ᄉᆞ을 부ᄒᆞᆯ고
지엽고 약간 저물을 젼ᄒᆞᆯ 곳지 업서 ᄎᆞ라리 불젼에 시쥬ᄒᆞ양후
ᄉᆡᆼ젼을 각골 되라ᄒᆞᄂᆞᆫ 펴션을 너에 황금 ᄇᆡᆨ양과 ᄇᆡᆨ미 ᄉᆞᆷ쳔셕과
황촉 ᄉᆞᆷ쳔ᄲᅡᆼ을 긔축ᄒᆞ여 쥬거ᄂᆞᆯ 노승이 비ᄉᆞᄒᆞᆯ 승공긔 앱씨뎍
지양ᄒᆞᄂᆞᆫ 징물을 쥬시ᄂᆞᆫ 은혜ᄂᆞᆫ 만이 ᄉᆞᆷ건이라 승공은 무ᄌᆞ
ᄒᆞ시믈 ᄒᆞᆫ탄 ᄲᅡ 업셔 ᄉᆞ쉬ᄒᆞᄂᆞᆫ ᄉᆡᆼ을 알뤼 서리셔 풍두 갈곳 업거ᄂᆞᆯ 시
탄이 놀나 원승인줄 알고 너ᄒᆞᆫ에 들녀가 부인을 본되 ᄉᆞ외 ᄯᆞᆯ을

셜화ᄒᆞ며 혹 ᄌᆞ식을 볼가 바라더니 과연 그달보터 태긔 잇셔
십삭 ᄎᆞ미 일〻은 부인 몽중에 하ᄂᆞᆯ노셔 봉 ᄒᆞᆫ 쌍이 ᄂᆞ려와
봉은 품에 들고 황은 나라가 모란동 장할임 집으로 드러가
거늘 부인이 봉을 품고 혼미 중에 순산ᄒᆞ니 아혜 형용이 비범
ᄒᆞ야 일긔 영ᄌᆞ러라 시랑이 ᄃᆡ희ᄒᆞ야 일홈을 ᄃᆡ봉이라 ᄒᆞ고 ᄌᆞ
는 비봉이라 ᄒᆞ다 ᄎᆞ셜 모란동 장할임이라 ᄒᆞᄂᆞᆫ 지상이 ᄀᆞᆺ스되 슬
하에 ᄒᆞᆫ ᄌᆞ식 읍셔 슬허ᄒᆞ더니 ᄒᆞ로ᄂᆞᆫ 부인 소씨 잉ᄐᆡᄒᆞ야 십삭
만에 일〻은 향내 집안에 진동ᄒᆞ며 소시 비몽간에 봉황 한쌍
이 하ᄂᆞᆯ노셔 나려와 봉은 장안동 李시랑 집으로 나라가고 황은 부인 품
으로 들거늘 놀나 살폐보이 여아를 순산ᄒᆞ야ᄂᆞᆫ지라 즉시 ᄒᆡᆯ인

멸쳥ᄒᆞ여 몽ᄉᆞ을 셜화ᄒᆞᆫ니 할 일이 ᄎᆞ회ᄒᆞᆫ 제 ᄯᅵ 아이 일흔 넘
의 ᄒᆞᆷ이라 ᄒᆞᆫ즉 시장만 동열ᄒᆞ고 가셔 孝시랑을 불문ᄯᆞᆯ 상공
이ᄀᆞ 봉비당에 잉ᄐᆡ긔시든ᄒᆞ던니 희반ᄒᆞ여 긔시온나 ᄉᆞ시랑이 당ᄯᆞᆯ
과연 今日午午시에 得男ᄒᆞ여ᄂᆞᆫ다 장할 일ᄯᆞᆯ 졔도 今日午時에 슌산
ᄒᆞ와 得女ᄒᆞᆫ이든 ᄒᆞᆫ ᄯᅵ 몽ᄉᆞ을 셜화ᄒᆞ거늘 孝시랑니 ᄯᅩᄒᆞᆫ 몽
ᄉᆞ을 셜화ᄒᆞ여 졔ᄂᆞᆫ 生男ᄒᆞ와 쏘니 후ᄉᆞ을 이을 集ᄒᆞ련이와 ᄒᆡᆼ
운 生女ᄒᆞ여셔 ᄒᆞ온니 ᄌᆞᆷ괴셤ᄀᆞ ᄒᆞ옵건이와 벙ᄉᆞ 일반하ᄒᆞ거ᄂᆞᆯ
장할 일은 日下生이 兄을 ᄃᆞ려무러 含마고 우오 쳥雲에 할게 올
ᄲᅵ 술리 졔상에 에거 ᄒᆞ와 쓰니 쳥이 여世 지별ᄒᆞᆫ 거라 이졔다 ᄒᆡᆼ이 同
年同月同日同時에 生男生女ᄒᆞ온 건時 긔이할 ᄲᅮᆫ 우에 몽ᄉᆞ ᄯᅵ고

ᄒᆞᆨ츄 양ᄉᆞ에 걷〻 경〻을 ᄎᆞᆼ양ᄒᆞᆯ 슈 업ᄉᆞ와 ᄒᆡᆼ외 아ᄎᆞ와 셩의ᄂᆡ 二
아ᄅᆞᆫ 반연가 칭을 졍ᄒᆞ여 맛혀ᄒᆞ오니유 李시랑이 쳥파에 대희ᄒᆞ여 현
년이 허락ᄒᆞᄆᆡ 쥬효를 ᄂᆡ여 죵일 즐기다가 張한림이 도라가 부인
을 ᄃᆡᄒᆞ여 졍혼ᄒᆞᆫ 말을 셜화ᄒᆞ며 ᄋᆡ황을 장즁보옥ᄀᆞᆺ치 ᄉᆞ랑ᄒᆞ
더라 셰월이 여류ᄒᆞ여 ᄃᆡ봉이 나이 칠셰 되ᄆᆡ 골격이 쥰슈ᄒᆞ고 셩
음이 웅장ᄒᆞ여 ᄃᆡ장부의 긔상이 늠〻ᄒᆞᆫ 시셔ᄇᆡᆨ가에 무불통달
ᄒᆞ니 부〻 ᄉᆞ랑이 늬ᄒᆞᆨ 층찬ᄒᆞ더라 시랑 부〻 ᄃᆡ봉의 조달ᄒᆞ믈 념녜
ᄒᆞ여 ᄆᆡ〻은 ᄃᆡ봉이 ᄇᆡᆼ셔를 보와 지화ᄒᆞ거〻 시랑曰 聖賢書도 허
다ᄒᆞ거던 ᄐᆡ평시졀에 鬼神도 측양치 못ᄒᆞᆯ 兵書를 보와 무엇ᄒᆞ리
ᄃᆡ봉이 븜曰 헌원씨ᄂᆞᆫ 萬古 명쥬로ᄃᆡ 치우에 난을 당ᄒᆞ시고 쇠요

ᄃᆞᆼ랑씨은 万古聖君이 ᄀᆞᆫ되 산효의 ᄯᆡ을 당ᄒᆞ샤 ᄉᆞᄅᆞᆷ이 泰平時을 잘 주이 잇소ᄯᆡ 大장부 世上에 處ᄒᆞ야 詩書와 도학을 ᄒᆞᆫᄒᆞᆫ에 通達 ᄒᆞᆫ 龍門에 올나 堯舜 갓튼 셩군을 도와 허리에 인ᄭᅮ을 ᄎᆞᆫ고 머리에 두 구시고 츌쟝입샹ᄒᆞ야 出時을 당ᄒᆞ려던 長창 大劍을 손에 들고 빗다 을 ᄉᆞᆷ벌ᄒᆞ고 泰平을 ᄡᅡ나면 이음ᄋᆞᆫ 숨ᄂᆞᆫ 附ᄒᆞ에 야ᄂᆞᆫ 다손 별 ᄒᆞᆷ을 ᄒᆞᆫ ᄇᆡᆨ에 올나 ᄡᅢᆼ은 ᄡᅡᆫ ᄌᆞᄌᆞᆯ 하사 ᄂᆞ샹의 언다과 부모의 은혜를 갑흘거 랑 엇지 ᄒᆞᄂᆞᆫ이 書冊만 ᄯᅡᆯᄒᆞ여 歲月을 送ᄒᆞ오리가 시랑이 ᄀᆞ드지 ᄌᆞᆨᄒᆞ몰 大흠ᄒᆞ며 ᄆᆞ은 朝졍에이 셔ᄂᆞᆫ 한ᄉᆞ 시외ᄒᆞᆫ 일ᄂᆞ리 ᄂᆡᄂᆞᆫ 죵ᄂᆡ의 古今을 본 ᄲᅡ들仁 여지 ᄅᆞᆫ다ᄒᆞ려 라나 何 天子 暗약ᄒᆞ고 간신을 쳐단치 못ᄒᆞ시고 大小 事을 모도다 右承相 왕희께 전챠ᄒᆞ시니 조졍 百官과 만ᄇᆡᆨ셩이 모

도왕회혼에 츌쳑ᄒᆞ므로 왕회 권셰 일국에 졔일이라 ᄒᆞᆫ나라 왕망과 진나라 조고에 쳔권ᄒᆞᆷ과 ᄀᆞᆺ치 셩인군ᄌᆞ은 도쳑비쳑ᄒᆞᆯ 갈듯 小人은 아홈도 슈동당이 되여 國事 뭇안ᄒᆞ다 皇帝 아지 못ᄒᆞ시고 小人을 니더 天下事 왕회ᄂᆞᆯ 되고 졍ᄉᆡᄂᆞᆯ 후무 大明 사ᄅᆞᆷ이 朝夕에 외티ᄒᆞ더라 시랑 李益이 上疏曰 臣이 國事를 ᄉᆡᆼ각ᄒᆞ온즉 엇지 한심치 아니ᄒᆞ오릿가 현신을 갓가이 ᄒᆞ옵고 小臣을 멀이 ᄒᆞ옵시면 國家에 흥ᄒᆞᆯ 근본이오 小人을 갓가이 ᄒᆞ옵고 현신을 멀이 ᄒᆞ오면 ᄉᆞ즉이 위티ᄒᆞ와 폐ᄒᆞᆯ 엇거ᄀᆞᆯ셔 왕회을 젼쳔ᄒᆞᄉᆞ 츙ᄆᆡᆫ을 업셰옵고 난역을 도로 ᄎᆔᄒᆞ시나 이가 진나라 조고와 송나라 진회ᄂᆞᆫ 작졍녹을 누리고 國運을 앗겨 못ᄒᆞ로 국강을 삭난 졔를 네ᄉᆞ룸이 自古로 낫이 조졍에 만ᄒᆞ오면 天下 편복을 ᄲᅡ나니와 폐ᄒᆞ엿거실

피지 아니ᄒᆞ시도다 간신 왕회 동등 사人을 處斬ᄒᆞ실 현인을 所ᄒᆞ사
國事을 ᄲᅡ근쳬ᄒᆞ옵소셔 ᄒᆞ여거ᄂᆞᆯ 님금이 左右로 ᄒᆞ여곰 上소을 보라
ᄒᆞ시니 상소 왕회와 병부상셔 진ᄐᆡᆨ별이 구유ᄒᆞᆫ이 업ᄉᆞᆼ한 순연을 조
졍을 미워ᄒᆞ고 大臣을 모함ᄒᆞ야 죄ᄉᆞ무셕이로소여다 ᄒᆞᆫ나라 고
광은 천ᄒᆞ의 츙되ᄒᆞ와도 츙臣이 업ᄉᆞ오니 秦國 왕후은 각위가 希ᄒᆞ도小
ᄉᆞ이옥 본원 폐ᄒᆞ은 李芝의 무망ᄒᆞ난 죄을 살피ᄉᆞ 이ᄂᆞᆫ을 처참
ᄒᆞ왓 國法을 엄슉게 ᄒᆞ옵소셔 ᄒᆞ난지라 上이 다시 왕회 말ᄉᆞᆷ을 듯고
李芝에 족도을 샥질 관속ᄒᆞ여 변위예 인ᄒᆞ라 ᄒᆞ고 악은 三千里
외에 위리안치ᄒᆞ고 그 아ᄃᆞᆯ 大鳳은 三千里 되던 白雲島에 정배ᄒᆞ라
ᄒᆞ시니 왕회 등이 李芝이 비로소 말년에 흉노에게 죽어 후환이 업시

하니 올타ᄒᆞ고 ᄌᆞ시 샹공등물너 ᄒᆞᆼ샹을 쥬고 분부曰 水로ᄀᆞ다 구孝益
에 부구를 졀박ᄒᆞ여 水中에 더디라 샹공등이 영을 거역지 못ᄒᆞ여
許락ᄒᆞ고 물너나와 강두에 大후ᄒᆞ더라 이ᄯᆡ 시랑 父子 졸지에
환을 만난 직 ᄉᆞ로니 뢰ᄀᆞᆯ셔 시랑이 부인 조氏를 장고 통곡曰 生은
죄악이 심즁ᄒᆞ여 직 ᄉᆞ로 가련ᄒᆞ와 夫人은 죄음時 가장과 ᄌᆞ식을
니별ᄒᆞ고 親척ᄭᅴ 이 人되이 가장을 원망치 말고 아무쪼로 몸을 안
보ᄒᆞ야 他日에 노망ᄒᆞ게 ᄒᆞ옵소셔 ᄒᆞ매 이동奎이 ᄒᆞ고 ᄯᅩ 大奉
에 ᄋᆞᆫ을 장ᄒᆞᆫ 뎐ᄂᆞᆫ 이비 죄로 원찬ᄒᆞ여 웃져ᄉᆞᆯ 무리 안이 ᄒᆞᆯ리요
ᄒᆞᆫ즉 大奉이 눈물을 거두 원父母을 위로曰 母親ᄭᅴ신 世도 ᄀᆞᆯ
젼ᄒᆞ엿던 ᄂᆞ라 ᄉᆞ地에 가시던 父親ᄭᅴ 은을 당하오리가 우리 父

子가되옵며직으로가온니明天이감동ᄒᆞᄉᆞ살와올낙되
이술지라母親을만도니섧허마옵시ᄂᆞᆫ貴쳬안보ᄒᆞ옵소
셔夫人시랑과大奉을이별ᄒᆞᆫ각〻길을ᄯᅥ나미그술픈형상
은ᄎᆞ마보지못할너라ᄎᆞ셜시랑과大奉이강두에일은이상공
등이비에오를기엳젹혹하거눌시랑父子등션ᄒᆞ여망〻淸파
에지는갈졔水운은참담ᄒᆞᆫ과도생은風ᄒᆞ여살갓치다라느니그간는
바을아지못할러라슈日後한곳디다〻르니상공등니이슨時에일
러나시랑父子을결박ᄒᆞ거늘시랑니大밍ᄒᆞ여연古을물은니
사공등이大당ᄒᆞ되우리도곡절를모르ᄂᆞ다만혹거올나양치발아ᄒᆞ며
결박ᄒᆞᆫ쳐불에에너흔련ᄒᆞ되시랑니황망ᄒᆞ여사공더러일을니므우리

부자ᄂᆞᆫ 본ᄃᆡ 업난ᄉᆞ람이라 절도 원老도 원등ᄒᆞ여와 任ᄒᆞᆫ이 현ᄒᆞ리ᄂᆞᆫ 부ᄂᆞᆫ
일리ᄆᆡ ᄒᆞᆫ이 ᄒᆞ여서 ᄃᆞᆫ결 ᄇᆡᆨ이 나설너 상ᄒᆞᆼ에 너ᄒᆞ라 ᄒᆞ니 上ᄒᆞᆼ에ᄂᆞᆫ ᄂᆞᆫ ᄉᆞ공이 ᄂᆡ더
ᄉᆞ공계ᄂᆞᆯ 유왈 공인이 포을 ᄒᆞ되 ᄌᆞᆨ에도 ᄉᆞ랑이 놉고 난 ᄒᆞᆼ에도 ᄒᆡᆼ편이 나ᄉᆞ
ᄒᆞ니 ᄉᆡᆯ ᄒᆞᆫ결 ᄆᆡᆨ을 셔니 물에 너키고 ᄇᆞᆷ에 나려 ᄇᆞᆷ셔 ᄉᆡᆯ유ᄇᆞᆷ고 ᄒᆞ리
난 엳ᄆᆡᆨ이라 ᄒᆞᆫ고 희ᄆᆡᆨ ᄒᆞ여 물에 너흐니 풍랑에 ᄃᆞᆯ이며 갈 곳을 아지 못ᄒᆞᆯ너니
라 뎡봉이 ᄉᆞ공 등을 ᄯᅥ지리 ᄆᆞᆯ ᄇᆡᆼ 나ᄒᆞ 孫ᄒᆞᆫ 물은 ᄀᆞᆯᄉᆞᆫ며 ᄒᆞᆼᄒᆞᆫ 이 ᄂᆡ소
강에 ᄂᆡᆼ ᄒᆞᄂᆞᆫ 옥ᄊᆡ의 효졀이라 自古로 효신 ᄆᆞᆯᄉᆞᆫ ᄉᆞ효고 ᄒᆞᆫ 되며
ᄉᆡ니 하물며 날ᄀᆞᆺᄒᆞᆫ 난셩이야 효경을 ᄉᆞᆯ니라 ᄒᆞᆫ 말은 강산이 쳔젼ᄒᆞ여 ᄉᆞ
ᄉᆞ방 키ᄅᆞᆫ 쳔도 무심ᄒᆞ여 우리부모 ᄉᆞᄒᆞ여 놈 水中孤魂이 되리라 ᄒᆞ니 ᄭᆡ
ᄃᆞᆼ니 水中에 물 뎌 가ᄅᆞᆯ 원과 옥ᄊᆡ를 ᄲᅡᆺ수 효졀을 의논ᄒᆞᆯ지라 엇지

너의을 뒤ᄒᆞ여 살리을 주ᄒᆞᆯ라 ᄒᆞ여 뉴훈에 傳ᄒᆞ여 두니 회알리 ᄒᆞᆷ잠
홀 강우가 비ᄒᆞᆷ ᄒᆞ더라 ᄉᆞ공 등이 시랑父子을 水中 너코 비을 두두
허황ᄒᆡᆼ은 도라와 승상 왕회을 보고 시랑父子 ᄌᆞᆷ몰ᄒᆞᆫ 말 고ᄒᆞ니
왕회 치회ᄒᆞ여 ᄉᆞ공 등을 후賞ᄒᆞ더라 각셜 쟝ᄒᆞᆯ안이 侍郎父子
졀도 쳥비ᄒᆞᆫ 말을 듯고 분을 이긔지 못ᄒᆞ여 즁병이 나되 ᄇᆡᆨ약
이 무효ᄒᆞ매 다시 이지 못ᄒᆞᆯ 줄 알고 부인과 일환의 손을 잡고 쳬읍 왈
인명이 在天ᄒᆞ니 ᄒᆞᆫ녀 빌리여 ᄌᆞᆷ도 나ᄂᆞᆫ 와셕죵신 원통ᄒᆞᆷ이 업건이와
侍郎父子은 分明 水中孤魂이 되얏ᄉᆞ니 大風의 신셰도 ᄎᆞᆷ혹ᄒᆞ엿ᄉᆞ와
여아 一身이 회랑 돈도 다시 환ᄀ 말남ᄌᆞ 가트면 쟝셩ᄒᆞ여 나의 원한을
셜치하려 ᄆᆞᆫᄂᆞᆫ 여ᄌᆞ 되리 원통ᄒᆞ다 ᄒᆞ여 인ᄒᆞ여 기셰ᄒᆞ니 부인 소ᄉᆡ 비통

긔졀ᄒᆞ엿다가계우졍신을차려의황을못듯든ᄯᆞᆯ슬후와너의신셰ᄅᆞᆯ
비박이ᄎᆞᆷ혹ᄒᆞ도다밋、지시에부모을녀희고누구ᄅᆞᆯ의탁ᄒᆞ리오
젼ᄉᆡᆼ에무ᄉᆞᆷ죄로이ᄉᆡᆼ에母女되여뎡화보링孟ᄉᆞᄒᆞᄂᆞᆫ너ᄅᆞᆯ두고셰상
을ᄯᅥ나니고혹ᄒᆞ나은[illegible]쳥셔안타ᄉᆞᆯ은ᄌᆞᆺ은너의신셰더욱가련ᄒᆞ다ᄒᆞᆫ
셩ᄒᆞᆫ명이진ᄒᆞ연ᄂᆞᆯ일가망극ᄒᆞ여곡셩이진동ᄒᆞᆫ동이ᄉᆞ람다슬허
ᄒᆞ롱ᄉᆞ졔여러번긔졀ᄒᆞ여더니비복등이구ᄒᆞ므로계우졍신을진졍
ᄒᆞ여초[illegible]죵범졀을극진이지ᄂᆡ고예로쳐션산에안장ᄒᆞ고ᄉᆞ졔비록나이너
리나쳐가지졀리능희광봉을당[illegible]할너라셰월리부졍ᄒᆞ여셤상을지
내며소졔의연광이二八이라玉顔운ᄆᆡ월부화용이금셰에ᄶᅡᆨ이업고
시셔을달통ᄒᆞ며음상오ᄂᆞᆫ법을무불通知ᄒᆞᆫ오ᄂᆞ졀〻ᄒᆞᆫ되도

원즁에 젼ᄒᆞ니 상ᄒᆞ 안면이 ᄎᆞᆷ졀ᄒᆞ여 리 엄ᄒᆞ여라 이ᄃᆡ에 右丞相 왕뇌 ᄒᆞᆫ
아ᄃᆞᆯ리 나시니 별홈은 셕연이오 ᄃᆞᆯ도 뉴ᄒᆞ여 문필리 과인ᄒᆞ고 문왕
희 사랑ᄒᆞ여 구혼을 널이 구ᄒᆞ더니 마ᄎᆞᆷ 좌유 장션 동장 한안의 여식
슉녀을 듯고 취ᄒᆞᆫ고로 ᄒᆞᆫ며 장한앙의 육녀 장츈을 쳥ᄒᆞ여 국쳔
이후의 ᄒᆞ며 팔년 듯ᄃᆡ 그ᄃᆡ에 흉젹며 빈활 소졔 ᄃᆡ환ᄒᆞ니 잇다 ᄒᆞ리
ᄂᆞᆫ 등ᄒᆞᆫ고로 쳥ᄒᆞ여 그ᄃᆡ의 졔ᄒᆞᆫ은 일국 가셰ᄒᆞᆫ 장안에네 유ᄒᆞᆫ ᄒᆞᆯ ᄉᆞ람이
엄ᄒᆞᆫ 하수 ᄇᆞᆯᄒᆞᆯ 걸리 업씨ᄉᆞ 귀ᄅᆞᆯ 쳥ᄒᆞ여 셩ᄉᆞ ᄂᆞ외 상소 ᄒᆡᄒᆞ여 등
혼ᄒᆞ여 셩ᄉᆞᄒᆞ리ᄒᆞ고 슌한 뒤 장츈이 샹인이라 왕희의 권셰을 두려워
ᄒᆞ여 무ᄂᆞᆫ 당이 업ᄉᆞᆫ 일 그 즉시 허락ᄒᆞ고 졈에 도화와 봉긴 진을 장ᄒᆞᆯ
일졈에 보니 에소졔을 보ᄂᆞᆫ 승상의 등ᄒᆞᆫ 하면 셜을 쳘화ᄒᆞ여 장소졔

장쇼졔 탄식 ᄃᆡ왈 숙모님께ᄋᆞᆸ셔 날위ᄒᆞ여 주혼 곡진ᄒᆞ시니 감격
ᄒᆞ거니와 父母生時에 모란동 李侍郎子와 임의 뎡혼ᄒᆞ와셔니 숙모님
은 혼사말을 파시니지 마ᄋᆞᆸ소셔 진셔 자셔 말을 봇ᄒᆞ고 졈에도 화와가
군을 보ᄂᆡ 古刹에 말을 젼ᄒᆞ니 장군이 다시 한염絲에 와 소졔을 불발
인ᄉᆞ ᄯᅢ 못ᄒᆞ여 향암 니외 분 不분 한ᄉᆞᄒᆞ야 상츈에 주작이 엿쳐고 졀ᄒᆞ
고 파산니 사아쳐 갈에 의혼을 주장ᄒᆞ되 불키ᄂᆞᆫ 왕승상子와 동婚ᄒᆞ고
와거늘 현졀은 李翰林子와 뎡혼ᄒᆞ엿다 ᄒᆞ고 다시 말ᄒᆞ거ᄂᆞᆯ 화ᄒᆞ되 李侍郎
父子은 死地에 갓ᄉᆞ니 死生을 아지 못ᄒᆞ고 二八靑春을 헛되이 보ᄂᆡ리오 王承相은
當時에 가라 任ᄒᆞᆫ 고아들 흉쳐이 두얍ᄒᆞ니 여ᄎᆞ 혼쳐을 구코져 ᄒᆞᆫ에도 엇지 못
할 假ᄒᆞ니 현졀은 고쳡지 말라 조ᄒᆞ이리 ᄯᅢᄒᆞ여 디황ᄒᆞ여 변치 못할 뿐이 부되

허락ᄒᆞ라 ᄒᆞᆫᄃᆡ 소졔 피셕ᄃᆡ왈 나의 ᄒᆞᆯ 가리ᄎᆞᄒᆞ와 일즉 父母을 여희ᄋᆞᆸ고 혈혈ᄒᆞᆫ
ᄉᆡᆼ의 잔약ᄒᆞᆫ 몸이 ᄂᆡ 신셰 ᄌᆞ 不可ᄒᆞ온 혼ᄉᆞ회 잇셔라도 叔父계옵셔 올흔 일
노 인도ᄒᆞᄂᆞᆯ ᄃᆞᆺᄒᆞᆫᄃᆡ 왕희 상쳔 손인을 의ᄒᆞ여 고란ᄒᆞᆫ 질에 외몸을 不可ᄒᆞᆫ 곳
에 녀ᄌᆞᄀᆞ로ᄃᆡ 그윽키 他人을 부셰허 ᄒᆞᆫ ᄇᆡᆨ은 ᄂᆞᆯ어 죽더라도 타문에 출가
ᄒᆞᆯ ᄆᆞ음 업ᄉᆞ오니 다시ᄂᆞᆫ 이ᄉᆞᄒᆞᆫ 말ᄉᆞᆷ ᄒᆞ시지 마ᄋᆞᆸ소셔 ᄒᆞ거ᄂᆞᆯ 장츈이 ᄃᆡ쳐 못
ᄒᆞ고 도라와 왕희를 보고 소졔의 거졀ᄒᆞᆫ 말을 젼ᄒᆞ니 왕희 왈 비록 거졀
ᄒᆞᆯ지라도 아모ᄯᅩ록 셩혼되기 ᄒᆞ면 그ᄃᆡ을 후ᄃᆡᄒᆞ리라 ᄒᆞᆫᄃᆡ 장츈이 고왈 절
에 의 ᄆᆞᄋᆞᆷ이 철셕 ᄀᆞᆺᄒᆞ니 구ᄒᆞ면은 능히 ᄭᆡ여ᄒᆞ니 부득이 계교로셔 겁婚ᄒᆞ
ᄒᆞ미 조흘가 ᄒᆞᄂᆡ다 왕희 왈 엇지ᄒᆞ면 달려오리오 장츈 왈 吉日을 ᄐᆡᆨᄒᆞ와
ᄃᆡ ᄉᆞᆷ경야에 노복과 인마을 보니여 소졔를 겁탈ᄒᆞ여 달려오기 되면 일편

여기라 슌흥흘 맛ᄒᆞ여 이다 왕회쌀 고시 말리 사ᄒᆞ다 ᄒᆞᆫ 吉日을 ᄐᆡᆨᄒᆞ여 소ᄌᆡ을 잡고 ᄎᆞ졉ᄒᆞᆫ 곳으로 ᄒᆞ더라 각셜 셔ᄒᆡ 용왕이 두 동ᄌᆞ를 불너 분부ᄒᆞ되 大明國忠臣李善의 父子 이선의 참소을 닙어 謫（뎍）所로 가다가 가흔ᄯᆡᆯ 水中에 ᄲᅡ질 거신이니 扁舟을 ᄐᆞ고 급피 가 각각 구ᄒᆞ라 ᄒᆞ니 두 동ᄌᆞ 聽명ᄒᆞ고 扁舟을 ᄐᆞ 蒼波로 나가 李侍郎 一身이 水中에 ᄲᅥ러지거늘 一童子 먼져 구ᄒᆞ여 舟中에 모시고 시랑 회ᄉᆡᆼᄒᆞ기를 기다리더니 시랑이 물을 토ᄒᆞ며 이윽ᄒᆞ여 졍신을 ᄎᆞ려 살펴보니 몸이 舟中에 누웟고 겻ᄐᆡ 동ᄌᆞ 안ᄌᆞᆺ거늘 공슌을 ᄎᆞ려 뭇왈 션동은 어더ᄒᆞᆫ 사람이완ᄃᆡ 水中 고혼을 구ᄒᆞ여 주난뇨 동ᄌᆞ 디왈 소동은 셔海龍王의 아들이ᄋᆞᆸ더니 父命을 밧ᄌᆞ와 상공을 구ᄒᆞ여 나ᄋᆞ다 ᄒᆞ며 ᄇᆡ을 한 곳에 ᄃᆡ히고 ᄂᆡ리기을 쳥ᄒᆞ거ᄂᆞᆯ 시랑이 무슈이 치ᄉᆞᄒᆞ여 左右을 살펴본즉

외로온셤즁이라사ᄅᆞᆷ이동ᄌᆞ다려문왈이ᄯᅡ흔무ᄉᆞᆫ셤이며황셩이예셔얼마
나되ᄂᆞ뇨동ᄌᆞ답왈이셤은무인도ᄂᆞᆫ이곳에황셩이ᄉᆞᆷ만이라ᄒᆞ되사ᄅᆞᆷ살ᄉᆡᆼ
동의여으ᄂᆞᆫ즁ᄉᆡᆼ몸이살아ᄉᆞᄃᆞ갑흘ᄲᅡᆼ을ᄡᅵ지못하거오라어지ᄂᆞᆯ로
다시보ᄅᆞᆷ을니질ᄒᆞ리오童子答曰上公은이島中에지쳥을앙보ᄒᆞ시ᄂᆞᆫ
쇽ᄒᆞᆫ인ᄒᆞᆯ불연이라上公이空中을향ᄒᆞ여무슈이ᄉᆞᄇᆡᄒᆞ고셤즁으
로두루ᄃᆞᆫ이며과실도쥬워먹고남우을ᄡᅥᆨ거쳥을의지ᄒᆞᆫ더잔명을
부지ᄒᆞ나부모와다봉을ᄉᆡᆼ각ᄒᆞᆫ눈물노歲月을보ᄂᆡ더니ᄯᅢ경ᄒᆞᆫ파외
로온셤즁의바ᄃᆞᆯ버슬ᄉᆡᆷ아쥬야의지ᄒᆞ더라ᄎᆞ셜大風이水中에ᄲᅡ져
風浪에ᄯᅥᆯ이여졍신이혼미ᄒᆞ엿더니엇던ᄒᆞᆫ동ᄌᆞ표쥬을가지고ᄂᆞ완
ᄒᆞ거ᄂᆞᆯ졍신을진졍ᄒᆞ여동ᄌᆞ을보고치ᄒᆞᄂᆡ동ᄌᆞ답왈나ᄂᆞᆫ西海룡

子라 父王의 命을 맛ᄌᆞ라 그ᄃᆡ을 平ᄒᆞ노라 ᄒᆞ고 비을 져어 풍우 ᄭᆞᆺ치 다라
나ᄂᆞᆫ 간은 그ᄃᆡ을 잇지 못ᄒᆞᆯ너라 ᄒᆡ욱ᄒᆞ며 ᄒᆞᆫ곳에 ᄇᆡ을 다히고 내리거ᄂᆞᆯ 현하
거ᄂᆞᆯ 죽ᄀᆡ되ᄂᆞᆫ 몸을 살녀 죽녹 감격ᄒᆞ건이와 나ᄂᆞᆫ 지명은 무ᄂᆞᆫ지명이
ᄢᅴ워 되가의 ᄒᆡᆨᄒᆞ오라 가니 곳은 天臺국이오 져긔 뵈이ᄂᆞᆫ 산은 금화山이오
그 中에 白雲암이 잇ᄉᆞ니 ᄎᆞᄌᆞ가면 ᄌᆞ연 구ᄒᆞᆯ ᄉᆞ람이 잇실 듸라 ᄒᆞ고 비을
져어 보니 가건을 되봉이 仙童을 이별ᄒᆞᆫ 中은 ᄎᆞᄌᆞᆯ 되가니 山은
첩、千峰이오 水은 잔〻 百溪로다 ᄒᆞᆫ편에 경쇠소ᄅᆡ 들이거ᄂᆞᆯ 졀 되노ᄂᆞᆫ
곳을 졈、 들어가니 그 ᄯᅡᆷ 광ᄉᆡᆨ은 ᄒᆞᆫ이 방ᄌᆞᆼ되며 左右에 둘너보고 긔화
요초은 사면에 ᄡᅡᆯᄒᆞ여 春色을 자랑ᄒᆞ고 장천에 폭포슈은 비류즉하
三千丈이오 石逕에 가득ᄒᆞᆫ 白雲은 분명 仙源일너라 山上ᄌᆞ나미와 화암두

져녁은 늘되을려 원과 슈회을 돕ᄂᆞᆫ지라 大鳳이 슬픈 ᄆᆞᄋᆞᆷ 진정ᄒᆞ며 도ᄃᆞ
ᄃᆞᆫ들러가니 한 老僧이 七尺袈裟에 九節竹杖을 집고 寺門外에 나와 ᄃᆡ봉
을 마ᄌᆞ ᄇᆡᄒᆞ며 왈 공ᄌᆞ 누지에 왕림ᄒᆞ셔되 소승이 멀리 나가 맛지 못ᄒᆞ오니 죄
송무지로소이다 ᄃᆡ봉이 노승을 보니 ᄒᆡᆼ상이 당ᄃᆡ 왈 老師계ᄋᆞᆸ셔 공ᄂᆞ속
과을 더ᄒᆞᆷ타 앉ᄂᆞ 션ᄂᆞ ᄀᆞᆺ쳐 과되ᄒᆞ셔ᄂᆞᆫ 황공무지ᄒᆞ여이다 노승이 사
례ᄒᆞ고 과실되 안치고 문왈 공ᄌᆞ계셔 거쥬 姓모 탄됨이시 ᄒᆞᆯ아 ᄀᆞᆺ 오신낫가
놉이리오셔라ᄂᆞᆫ 명천이 감동ᄒᆞᄉᆞ 소승이 공ᄌᆞ도ᄅᆞᆯ 더부러 동거ᄒᆞᆯ 년분이
이늘 佛우에 공ᄌᆞ ᄃᆡ음은 슈천양이 결되낫ᄉᆞ오니 ᄒᆞᆫ 옷은 환섬ᄒᆞ고 늑하
앏ᄉᆞᆸ셔 공ᄌᆞ 경아 왈 소ᄌᆞ의 ᄂᆡ력을 ᄌᆞ세이 말ᄉᆞᆷᄒᆞ오리 과연 이시랑 아들
이별ᄒᆞ고 노친ᄉᆞ계앏셔 니거야 ᄯᅳ서ᄯᅢ 金銀이 延壽寺에 잇다ᄒᆞᆷ우ᄂᆞᆫ 연고

논ᄌᆞ 모든 냐ᄒᆞ라 노ᄉᆞᆼ 발ᄃᆡ 변에 노ᄉᆞᆼᄉᆞᆼ 계양 제ᄌᆞᆼ 곤ᄃᆞᆫ 박ᄉᆡᆼ과 박미 ᄃᆞᆫ박 셕과 ᄒᆞᆼ
춘ᄃᆞᆫ 쳔명을 츅셔ᄒᆞ니 이졀을 흠유ᄒᆞ여 ᄉᆞ슉 어지 온 혜ᄃᆞᆯ ᄉᆞ 오회가 ᄯᅬ숑을
형ᄒᆞ여 ᄉᆞᆼ면ᄒᆞ니 大봉이 각ᄀᆞ ᄃᆞᆷ에 ᄒᆞᆫ 후에 공ᄌᆞ 왈 ᄉᆞ는 本家이 足見 사ᄂᆞᆫ ᄒᆞᆫ
난재어라 무ᄉᆞ 셰츄을 ᄒᆞ여ᄉᆞ 오회가 노ᄉᆞᆼ발 공ᄌᆞ 어지 셰ᄉᆞ을 ᄆᆡ오회가 다만
순ᄉᆞᆼ과 동거ᄒᆞ다 셰월을 보ᄂᆡ다가 ᄯᅢ을 ᄭᅵ다리 ᄲᅡᆼ슈ᄯᅦ ᄯᅴ봄을 다ᄯᅬ고 ᄲᅧᆯ ᄃᆞᆼ
에거쳐ᄒᆞ여 詩書百家語와 孫吳兵書을 슉독ᄒᆞ되 ᄉᆡᆼ셜왕 ᄉᆞᆼᄉᆡᆼ이
吉日을 당ᄒᆞ여 아ᄌᆞ 셩연ᄒᆞ라 비복 등으로 ᄒᆞ여곰 공중을 갓초와 장ᄯᅥᆫ 동으
로 보실 ᄯᅢ에 셩연일 ᄒᆞᆼ이 장ᄂᆞᆫ 동을 당ᄒᆞᄂᆞ니 ᄲᅡᆼ이 ᄭᅬ소ᄅᆡ 이라 장
차로 온갖 何을 기ᄅᆞ여 ᄎᆡᆨ잘 ᄒᆞ고 ᄎᆡ ᄒᆞ여 ᄎᆞ셜 장ᄉᆞ ᄎᆡ는 ᄒᆞᆫ 쥭ᄒᆞᆫ 줄
빌ᄂᆡ간 셔창을 보랴 가 뵈ᄉᆞᆼ에 온 좌ᄒᆞᆫ 소리를 듯고 셔ᄯᅥ난 ᄒᆞᆼ을 보ᄂᆡ여 ᄯᅥᆫ ᄂᆞᆫ

을 아라 보사 ᄒᆞᆫ 되 난향이 ᄃᆡ 보ᄒᆞ되 왕손 상뎨의 복등이 고마올 사지 ᄂᆞᆫ되
랑에 ᄡᅡ혀 ᄒᆞ여 ᄂᆞᆫ 부ᄉᆞ 옥쳡을 일슈 ᄇᆞᆸ나 年 쇼졔 ᄯᅵ뎐 ᄋᆞᆯ 향ᄎᆞ에 왕희가
칭혼한 거ᄉᆞᆯ 니ᄅᆞ쳘 ᄒᆞ여 ᄯᅥ ᄂᆡ 심야에 고마올 보시믄 난을 겸찰 코져
하며라 사계위 슈근ᄒᆞ여 흉언을 번활되라 하ᄂᆞᆫ 슈는 은 복을 잘나
자결코져 ᄒᆞ더니 난향이 급히 살ᄒᆞ야 ᄭᅡᆯ 쇼졔은 잠관 진졍ᄒᆞ야 앙쇼ᄒᆡ 반일
급히 光大監 유한과 남군의 원슈을 누가 ᄒᆞ여 갑파 ᄒᆞ회오 쇼졔의 복
을 쇼비가 업고 쇼졔 침방에 안ᄌᆞ 스션 난향의 출보 ᄀᆞᆫ 얍고 겸찰ᄒᆞ여 ᄉᆞᆯ거
신 쇼졔은 남복을 환착ᄒᆞ신 장원을 남여 방을 도모ᄒᆞᆫ 쇼졔 쇼졔 ᄂᆡ
ᄆᆞᆯ 되 감격ᄒᆞ다 ᄯᆞᄂᆞᆫ 서울이 유흥에 셩장ᄒᆞ여 동쳐 南世를 分別치 못ᄒᆞ니
위되 가셰 살님을 부탁ᄒᆞ믄 ᄒᆞᆫ 그 방안에 셰월을 즉ᄎᆡ이 ᄯᅡ 가치 못하야 하

거늘 나향이 다시 왈 天地廣大ᄒᆞ엿고 人命이 在天ᄒᆞ니 엇지 살곳지 업ᄉᆞ오
리요 十金 귀쥬ᄅᆞᆯ 도모ᄒᆞ와 남복을 닙어 쇼져ᄒᆞᆫ 남복 닙경을 젼ᄒᆞ 걸을
쇼져 잔왈 셜혹 나ᄂᆞᆫ 남복을 닙은 ᄲᆡᆼ을 도모ᄒᆞ려 ᄒᆞ와 도니난 ᄒᆞᆫ셔이 잘노 쥴
변뫼언 즁경을 변치 못ᄒᆞ리 이 ᄒᆞᆫ가지로 망ᄒᆞ더ᄅᆞᆯ 마ᄒᆞ노라 나향 왈 쇼
비자 쇼져을 보시고 ᄒᆞᆫ가지로 망ᄒᆞ노면 삼희의 비복등이 쇼져 침방에 업ᄉᆞ므로
도망ᄒᆞᆫ 쥴 알고 뒤ᄅᆞᆯ 쫏칠 거인이 멀어 가도 못ᄒᆞᆫ 잡피바 될 거시니 쇼비
사ᄉᆡᆼ은 념에 ᄲᅡᄃᆞ셔 급히 도망ᄒᆞ옵쇼셔 쇼져 왈 아모리 ᄉᆡᆼ각ᄒᆞ여도 너을 쥭열
곳을 보시고 나 혼ᄌᆞ 살리 도모ᄒᆞᆯ ᄯᅳᆺ은 업노라 나향 왈 셜혹 ᄒᆞᆫ셔이 잘노
ᄒᆞ와도 쥭지 아니ᄒᆞᆯ리지오 셜혹 쥭ᄉᆞ와도 신하은 님군을 위ᄒᆞ여 쥭ᄂᆞᆫ 일이 잇ᄉᆞᆸ고 시
비온 상젼을 위ᄒᆞ여 쥭ᄂᆞᆫ 일리 허다ᄒᆞ오니 쇼져은 쇼비의 츙졀을 ᄲᅡᆯ유

치말ᄒᆞ신즉 리도 ᄯᅩᄒᆞᆫ 앎ᄉᆞᆯᄒᆞ신을 소졔 마지못ᄒᆞ여 남복을 벗은 난향의
손을 잡고 왈 황쳔이 감동ᄒᆞ샤 우리 노쥬 다시 상면ᄒᆞ게 ᄒᆞ엿 소졔 ᄒᆞ여 ᄎᆞ마
ᄯᅥ나지 못ᄒᆞ거ᄂᆞᆯ 난향왈 이리시ᄒᆞᆷ ᄒᆞ오 ᄲᆞᆯ니 나가쇼셔 ᄒᆞᆫ 소졔을 장원을 넘
겨 보시고 난향은 소졔 침방에 들어와 쳔연니 안졋더니 이윽ᄒᆞ여 왕희 비복 등
이 ᄂᆡ당에 들어와 포장을 방문 압헤 놋고 난향을 ᄃᆡ하여 왈 소졔은 쳔졍연분
을 어긔지 말라 ᄒᆞ고 모ᄎᆞᆺ을ᄂᆞᆫ ᄃᆞ리여 상부ᄂᆞᆫ 가샹이라 ᄒᆞ신을 난향이 거짓 놀
난채ᄒᆞ고 비복 등을 ᄭᅮ지져 왈 너의 등이 감히 ᄒᆞᆫ밤의 ᄉᆞ대부 ᄂᆡ졍에 들어와 누
을 회ᄒᆞᆫ 죄 하ᄂᆞᆫ다 혼인은 인륜ᄃᆡᄉᆞ라 ᄒᆞ외ᄂᆞᆫ 예ᄉᆞᆷ 가례혼 하기 올건을 위
력을 밤을 ᄐᆞ ᄉᆞ부가예 규즁 규슈을 겁칙고져 ᄒᆞᄂᆞᆺ 쳔무례ᄒᆞᆫ 법이
인윤에 비하지 못할 죄로다 ᄂᆡ 몸이 너의 위력에 욕을 볼 것 업서 죽일거

라ᄒᆞᆫ 슈건을 몸을 잘 드ᄂᆞᆫ 방희 비복 등이 볼 시에 달여 슈건을 살여 놋고 소졔
을 곳에 ᄯᅡ쳐 두고 左右 부츅ᄒᆞ여 나가ᄆᆡ 난향이 ᄒᆞᆯ슈 업셔 다만 件거리만 ᄲᅡ지 아니
ᄒᆞ매 곳에 볼ᄂᆞ 못ᄃᆞᆯ네 갈쎄 장단 등을 ᄯᅥ나 바라 산ᄉᆡᆼ이 울다〻 뒤바라 상노ᄅᆞᆫ
인ᄯᅢ 이 ᄎᆔ졍ᄒᆞ매 셔ᄃᆞᆫ 일ᄃᆞᆫ 긔울 장ᄒᆞ야 ᄯᅡ니 왕소졔 왕승상 곳ᄎᆞ 와 호ᄎᆔ하
에 산ᄒᆞᆫ ᄒᆞ여 갈ᄉᆞ ᄒᆞ야 ᄒᆞ라 난향이 왕승상 ᄃᆡᆨ에 이러니 左右 호진을 ᄲᅦ루려 ᄃᆡ면
을 베셜ᄒᆞ여 ᄯᅩ 쇠라 조졍 박관이 ᄆᆡ 만당 빈각이 열좌ᄒᆞ니 규즈 낭ᄌᆞ ᄒᆞᆫ 건을 난
향 나 당에 들러가 여러 부인이 난향을 보고 ᄃᆡ장 소졔은 검츌 방공 ᄀᆞᆺ 색이
ᄃᆞ다ᄒᆞ며 칭찬을 마지 아니ᄒᆞ고 음식을 권ᄒᆞᄂᆞᆫ지라 난향이 놉졀 셜치고 외당에
나와 ᄇᆡᆨ과 좌즁에 이러〻 王丞相을 보고 말 소비은 강소졔 시비 난향이압건와 외
랑이 소졔의 ᄒᆡᆼ셔을 가지고 승상 ᄃᆡᆨ에 와ᄉᆞᆸ고 죄ᄉᆞ무셕이압건이와 승상 계압

셔一国大臣은 병마이 즈야에 간동ᄒᆞ셔 셔ᄂᆞᆯ 위하신 공로 쳐워 되업소와 구디
며 우리 삼뎨을 겸찰코져 ᄒᆞ시난 고사 우리 삼뎨 계압셔난 욕을 면ᄒᆞ랴고 장원에
목을 ᄆᆡ고 ᄌᆞ결코져 ᄒᆞ여 ᄉᆞ상을 알유 업건이와 신한 날의 서삐을 분별
치못ᄒᆞ압고 서삐을 다려다가 부원ᄒᆞ실좌 ᄒᆞᄂᆞ이다 한즉 좌즁이 경아ᄒᆞ며
승샹이 난향을 위ᄒᆞᄂᆞᆫ 즁에 발현부난 바 놉갓던 졍졀을 쳔한 비복 등의게
뵈이지 말고 원컨연 본인즉 네 당은 들려가라 ᄒᆞ되 일향 시삐 난향이라 ᄒᆞ온
들려가지 아니ᄒᆞ거ᄂᆞᆯ 丞相이 의아ᄒᆞ여 張俊을 請ᄒᆞ여 소졔의 진간을 분간
ᄒᆞ와ᄒᆞᆫ즉 장쥰이 난향을 본 ᄭᅮ지져 왈 너 샹쳔을 속기고 소졔의 한샤을
봄ᄯᅡ라 승샹 압에 왓나라 난향이 울 ᄯᅢ 소졔 쥭으려 ᄒᆞᆫ 그 ᄡᆡᆺ줄로 나가란 거라 ᄒᆞᆫ 거ᄉᆞᆯ
승샹이 난향의 거동을 보고 大怒ᄒᆞ여 쥭이려 ᄒᆞᄂᆞᆫ지라 좌우 말유왈 난향은 즁

비라ᄒᆞᆷ에 무악ᄒᆞᆫ즉 도를 보니 소셰ᄒᆞᆫ ᄀᆞᄂᆞᆫ 상이 ᄌᆞᆷ괴ᄒᆞ여 나ᄂᆞᆫ 향을 ᄯᅥ거져
물이 ᄎᆡ더라 나ᄂᆞᆫ 향이 도라와 소졔의 ᄎᆞᆷ덕을 몰나 ᄀᆞᆷ이 거시더라 ᄎᆞ셜 장소졔 밤
을 안ᄒᆞ여 졍쳐 업시 가더니 여러날 만에 에 남ᄯᅡ에 이러ᄒᆞᆫ 징을 ᄎᆞᄌᆞ사 ᄒᆞᆫ망을
빌더니 이졈은 쳐어ᄉᆞ 졈이라 어ᄉᆞ은 일즉 기세ᄒᆞ고 부인 ᄒᆞ씨 ᄒᆞᆯ 일 업셔 ᄒᆞᆫ 여식
으로 더부러 歲月을 보내더라 ᄂᆞᆺ셔 ᄒᆞ룬 부인이 마ᄎᆞᆷ 밧비 나아 희상을 보고 문밧
공ᄌᆞ은 엇더ᄒᆞᆫ ᄉᆞ람관듸 이 모양을 걸사ᄒᆞᄂᆞᆫ고 ᄒᆞ여 뇌당에 쳥ᄒᆞ여 안치고 거
쥬 셩명과 연세을 뭇거ᄂᆞᆯ 소졔 ᄃᆡ답ᄒᆞᆯ 셩명은 장희운이옵고 거쥬은 기쥬ᄯᅡ에 사
ᄒᆞᆸ고 난이 光州 올ᄉᆡ 여러셔 불ᄒᆡᆼᄒᆞ와 부모을 여희고 졍쳐 업시 ᄃᆞᆫ니ᄂᆞ이다 부인
이 쳥ᄯᅡ에 공즁이 여러 ᄇᆞᆯ 몰본 상ᄒᆞᆫ즉 일즉 부모을 여희면 져 모양이 될ᄃᆞᆺ
하라 ᄒᆞ고 ᄌᆞᆫ반을 후ᄒᆞ이 ᄎᆞᆯ리더니 졉ᄒᆞᆫ 후에 부인 발 공ᄌᆞ의 상을 보니 일후 귀

희뎡거라 져리단이 져 ᄯᆞᆯ고 외당에 잇셔 셰상을 긔얄리 다ᄂᆞ려ᄉᆞᄒᆞᆫ을 순졔 ᄯᆞᆯ 부인
계양셔 거ᄅᆞᆫ 신을 누ᄅᆞ쥬ᄎᆡ 안ᄂᆞ시고 외당에 잇셔 ᄒᆞᆫᄒᆞ오니 ᄂᆞ은 헤ᄯᆞᆼ ᄌᆞᄒᆞ엿건이솨
손ᄌᆞ를 ᄌᆞᄂᆞ 뵈와 ᄉᆞᆼ고 다ᄅᆞᆫ 양ᄌᆞᆨ은 뵈오지 못ᄒᆞ여 사ᄉᆞᆨ 슬ᄒᆞ 됴ᄃᆡ에 잇긔 불안하
옵ᄂᆞ라 불ᄒᆡᆼ ᄯᆞᆯ 뵈ᄋᆞᆸ 쥬장 업셔 노복과 ᄂᆞᆨᄉᆞ을 의지ᄒᆞ되 지ᄂᆞ니 외당이 뎍을
ᄒᆞᆯ 뿐 ᄋᆞᆺ에 공ᄌᆞ ᄉᆞ셰 가궁ᄒᆞ니 외당에 잇셔 글공부나 ᄒᆞ여 후일을 기ᄃᆞᆯ이
라 ᄒᆞ거ᄂᆞᆯ 순졔 ᄎᆔ희ᄒᆞ여 부인계 비ᄉᆞᄒᆞ거ᄂᆞᆯ 부인이 ᄎᆡᆨ장을 ᄉᆞ셜ᄒᆞᆫ 셔ᄎᆡᆨ
과 병셔를 니여 쥬거ᄂᆞᆯ 순졔 쥬야 셔ᄎᆡᆨ과 병셔를 공부ᄒᆞ니 부인이 더옥
사랑ᄒᆞ더라 셰월이 여류ᄒᆞ여 三年을 지내미 회운이 나이 二十셰 문장과 호풍
환우지슐을 무불통지ᄒᆞ거라 ᄀᆡ셜 天子이 졔을 구ᄒᆞᄉᆞ 과거을 뵈일
셰 사방 션ᄇᆡ 구름 모은 ᄃᆞᆺ ᄒᆞ지라 순졔 ᄒᆞ루는 부인계 고왈 듯ᄉᆞ오니 황셩셔 과거

을보이시다ᄒᆞ시니 ᄎᆞᆫ도올나시다 관광ᄒᆞᄂᆞᆫ 져자ᄊᆞᆷ나다 부인이 갓쳐 허락
ᄒᆞ고 장ᄎᆞ 혼장을 칠ᄉᆡ 그ᄯᅢ ᄒᆞᆯ놀 그몸이 ᄲᅡᆨ복ᄒᆞ여 아들되엿다 ᄒᆞ니
녀식을 두엇더니 임의 쟝셩ᄒᆞ여 비록 ᄆᆡᆼ광의 덕과 장강의 ᄉᆡᆨ이 업ᄉᆞ나 가히
군ᄌᆞ의 되을 맛들만ᄒᆞ거ᄂᆞᆫ 공ᄌᆞ을 위ᄒᆞ여 ᄆᆡᆼ한 ᄃᆞᆺ셔 엿나 공ᄌᆞ은 ᄒᆞᆫ번
과거에 관광ᄒᆞᄂᆞᆫ 니러 쳐녀을 탐ᄒᆞ여 쳥혼ᄒᆞ여ᄂᆞᆫ ᄉᆞ람 부라난 ᄃᆞᆺ슬
져바리거ᄂᆞᆯ 나ᄒᆞᆫ 되희운이 실ᄒᆞᆫ쳐에 노되 너의 ᄒᆡᆼ식을 보ᄂᆞᆫ 시ᄂᆞᆫ 여아ᄂᆞᆫ 쎼부
쳑ᄒᆞ여 그ᄃᆞᆺ시 감격ᄒᆞ나 본졍을 발ᄒᆞᄌᆞ ᄒᆞ면 죵젹이 탈노날가 ᄒᆞ여 아즉
허락ᄒᆞᆫ 감ᄎᆞ면 등ᄒᆞᆯ 뢰이라 ᄒᆞᆫ 발 부인ᄭᅴ 앗셰 ᄉᆞ졍을 발유ᄒᆞ신은
헤도ᄇᆞᆫ 물ᄂᆞᆫ ᄉᆡᆼ이 녹거ᄂᆞᆯ ᄒᆞᆫ을ᄯᅢ 지ᄒᆞᆫ 선ᄉᆞ 쳥을 반던 가약을 졍ᄒᆞᆫ 져ᄂᆞᆫ
셔황ᄋᆞᆼ남ᄉᆞ로오ᄭᅦ 유이 도라와 슬하에 모실 거ᄉᆞ오니 과렴치 마옵소셔

ᄒᆞᆫ길을ᄯᅥ나황셩을향ᄒᆞᆯᄉᆡ리류에당도ᄒᆞ야장ᄇᆞᆫ동을ᄎᆞᆺ가산쳔
은의구ᄒᆞ건ᄉᆞᆷ츅은ᄲᅡ지난ᄃᆞᆺᄒᆞ여비챵ᄒᆞᆫ눈물리놋편늘젹셔ᄯᅥ라본
집에드러간즉장원이퇴락ᄒᆞ여곤류ᄃᆞᆯ되앙〻이왕시ᄒᆞ여ᄯᅡ노ᄅᆡ난향
이ᄒᆞ노을누ᄃᆡ당에안ᄌᆞᄯᅡᄆᆞ옷ᄭᅩᆺ들려先ᄉᆡᆼ을본물ᄃᆞ퇴코ᄀᆞᆫᄒᆞ뎌ᄂᆡ
문득소졔눈을들러난향니앙ᄒᆞᄂᆞᆫ소ᄅᆡ귀놀나ᄭᆡ듯ᄂᆡ려소졔를
모셔장소에올나ᄲᅡᆫ소ᄲᅡᆫ곡하난ᄯᅢ리우리소졔남긋되여본ᄯᅡᆼ을한차
ᄒᆞ거ᄂᆞᆯᄲᅡᆯ니ᄉᆡᆼ각ᄒᆞ니츙양업슴누구라소졔ᄉᆡᆼ각ᄒᆞᆫ난향의ᄯᅳᆺ을잠ᄭᆞᆫ즈ᄅᆞᆫ즐알ᄯᅡ려나
다셔상봉ᄲᅡᆫ삼셔ᄯᅡ소졔를위ᄒᆞᆫᄒᆞᆫ류츈을니어소졔를권ᄒᆞ니소졔비
ᄎᆞᆷ혹ᄒᆞᆫᄆᆞ음을진뎡ᄒᆞ고ᄉᆞᆯ너본ᄯᅥᆫ이ᄉᆞᆷ희의활을ᄭᅥᆨ어ᄲᅥᆺ거ᄉᆞᆯ라ᄂᆞᆫ을ᄒᆞ거
ᄂᆡᆯ난향이시즁을ᄃᆞ알외되소졔의〻복ᄋᆞᆸ그ᄯᅡᆫᄀᆞᆺᄯᅦ복ᄉᆞᆫ거던말이ᄯᅴᄒᆞᆯ뉴

영셰롤을 찰가다가 벽파강에 이러〻 벽파강인던 어던 셜ᄒᆞ던 말리ᄯᅢ왕회
졍에 나아가 ᄆᆞᄂᆞᆫ 왕희을 지ᄒᆞ며 셔쳣던 말리며 흉이러ᄒᆞᆯ졔 번각이 말을 유ᄒᆞ
ᄯᅦᆺ와 ᄯᅥᆫ 말리ᄯᅢ 졍에 도라와 홀을 고낫난 말을 낫〻되고 生列任ᄒᆞᆫ 쥔
후견ᄯᅥᆨᄒᆞᆫ 셰고 샹ᄒᆞᆫ 말을 모도 셜화ᄒᆞ고 ᄇᆞᆯ셔가 낭을 다리고 셰月을 보
내고 슈ᄒᆞ되 부모의 유ᄒᆞᆫ과 낭군의 원슈를 갑흘가 ᄒᆞ며 이졔 과거 보러와
셔 흑 너ᄂᆞᆫ 이강을 거ᄒᆡ고 셰을 긔ᄃᆞᆯ리어라 ᄒᆞ며 나ᄂᆞᆫ 항을 작별ᄒᆞᆫ 황셩
에 다〻른 엇셰 모츈삼월리어라 과일을 당ᄒᆞ며 황졔 츈당ᄃᆡ에 편좌
ᄒᆞ시고 ᄉᆞ방 션ᄇᆡ 구름 모인 ᄃᆞᆺᄒᆞᆫ지라 글졔을 부두 보고 필휘지ᄒᆞ며 일
쳔에 션쟝ᄒᆞ니 황졔 이 글을 보실ᄎᆞ〻 이ᄇᆡ졈이온 지〻마다 관쥬로다 쟝
원을 ᄉᆡ회신 봉ᄂᆡ을 ᄯᅦ여 보신후 실ᄂᆡ을 불러샤 生졔 욕탑에 나아

가ᄇᆡ비ᄌᆞᆫ호후에환계실아ᄉᆞ되경이젼ᄒᆞᆫ안장화의아ᄃᆞᆯ이라ᄒᆞ니장화
은감의고황거신을ᄂᆞᆫ불행이얼극흉을장이ᄒᆞᆫ탄홍련보날〻경
을보니어거ᄆᆞᆯ슴거안호리은흥극서ᄒᆞᆫ안ᄒᆞᆫᄌᆞ을재유ᄒᆞ션되ᄒᆞᆫ
인ᄂᆡᄌᆞ은누빈후에청홍쌍검을ᄲᆞᆺ죄청홍ᄯᅮ상에두어서안ᄌᆞᄂᆞᆫ의화
홍은ᄂᆞᆫ장안뒤도상에나누어보ᄂᆞᆫᄉᆞ람이뉘야홍졀ᄒᆞᆯ리을三日유과
을ᄲᆞᆺ쥐후고향에너희와쳔영에손분홍보ᄂᆡ에들러가난향을바
나셜ᄂᆞᆫ갈리ᄒᆞ가에남ᄂᆞᆫ어나살셰보ᄋᆡ호부인이한임오ᄂᆞᆫ손문을ᄃᆞᆺ
고열이낙화바ᄌᆞᄃᆞᆯ러가쥐ᄒᆞ발ᄒᆞᆫᄒᆡᆯ앙이존연강원ᄒᆡ죄ᄒᆞ와몸이지희
되씨여되ᄂᆞᆯᄌᆞᆫᄉᆞ람을ᄌᆞᆺᄎᆞᆯ올감ᄯᅥᆨᄒᆞ도다ᄒᆞᆫᄆᆞᆷ이ᄉᆞ셰쌀의ᄒᆞᆯ없난몸
이부인의은덕은몸이융문에ᄇᆞᆯ니사녹도셔부인의후은으론ᄉᆞᆫ이라

부인이 사랑하믈 마지안이ᄒᆞ여 길일를 ᄐᆡᆨᄒᆞ여 셩혼코져 ᄒᆞ더니 又何
마참 천ᄌᆞ계압셔 한왕을 폐ᄒᆞ시고 ᄂᆡ치라 ᄒᆞᆫ압어 황셩의 올나가ᄂᆞ계
에 복지ᄒᆞ온듸 상이 이언젼ᄒᆞ시고 날 경은 짐의 고굉이라 슈족갓치 멀어
두지 못ᄒᆞ엿셔 조쳑을 근서ᄒᆞ여 짐의 ᄲᅡᆨ지 못ᄒᆞᆫ 물도어라 ᄒᆞ시고 한
림의 ᄇᆡ살을 도〻와 이부상서 겸 간의ᄃᆡ부을 졔슈ᄒᆞ시니 명망이 조야
에 진동ᄒᆞ더라 右丞相 왕회 張현에 축ᄉᆞᆯ 젼ᄒᆞᆫ 장화은 아들 업ᄉᆞᆷ고 다
만 ᄯᆞᆯ ᄒᆞ나만 잇셔 동쳐 유희ᄒᆞ옵더니 이제 ᄂᆡ삼 장희운에 장화의 아들
이라 ᄒᆞᆫ즉 ᄯᆞᆯ인ᄃᆡ 화암ᄒᆞ여 조졍을 희롱ᄒᆞᄂᆞᆫ 거시 ᄂᆞᆨ희운의
벼살을 실은 거군왕 상거졍을 다ᄉᆞ리계 ᄒᆞ옵소셔 ᄒᆞᆫ나치라 상이
노ᄒᆞᄉᆞ 장화가 막향ᄒᆞᆫ 죄인의 ᄌᆞ녀이라 子女有無을 그ᄃᆡ 엇지 알

고블샹한ᄯᆞᆯ 업ᄉᆞᄌᆞᄒᆞᆫ 눈 ᄒᆞ시며 仵지져 물이 ᄎᆞ실 왕희 모연ᄉᆞ이 되
ᄒᆞ여 장희본음 귀ᄒᆞᆯ 일을 챵ᄉᆞᆨᄒᆞ더라 일ᄋᆞ온 天子 황극젼의 뎨
쳥녀을 ᄢᅦ쳘ᄒᆞ서고 ᄯᅡᆫ 즐발관을 ᄂᆞᆯ려 부뎌 걸긔서 쳥ᄒᆞᆫ 안졀도九
이슌티 장리ᄅᆞᆯ 블어 거ᄂᆞᆯ 긔쥭ᄒᆞ야 ᄒᆞ여서 티 션우 장쳥ᄒᆞ여 옹좌 반
ᄯᅡ과 졀긔 옹ᄲᅡᆫ을 거나리고 남방을 범ᄒᆞᄂᆞ 긔봉 보난 장슈을 ᄯᅡ
ᄒᆞ여 ᄲᅡᆨ으 ᄉᆞᆫᄒᆞ여 거ᄂᆞᆯ 쟈쳥티 슈쳘 ᄯᅡᆫ츄이 장계을 블어 거ᄂᆞᆯ리라
ᄒᆞᄂᆞᆫ 션우 흉노 장ᄉᆞᆯ 거ᄂᆞ리고 텽ᄒᆞ을 ᄒᆞᆫ 북방 황셩을 범ᄒᆞ다 ᄒᆞ
여거ᄂᆞᆯ 上이 남졀에 오ᄌᆞᆼ을 ᄃᆞ라 보와알 션우은 ᄌᆞ본 강덕이라 옹뮝이 비범
한즁ᄂᆡ 능희 장ᄒᆞᆯ 졔 이실리오 兵부샹셔 陳탕열은 왕희의 도장이라
츌ᄯᅢ ᄒᆞ쌀 장희은 이비ᄒᆞ연 就ᄒᆞᄂᆞ 문무겸젼ᄒᆞᄂᆞ 샹장을 봉ᄒᆞ라

방쟉ᄒᆞ옵ᄉᆡ 左右諸臣이 合奏曰張遐雲나 잇장ᄒᆞ엿ᄉᆞ미다 上이 묵연이안
ᄌᆞ단 侍郎장희ᄒᆞ이 부지ᄒᆞ왈 臣이 비록 지조 업ᄉᆞ오나 지명을ᄒᆞ
시면 젼장에 나아가ᄡᅡ화 반賊을 소멸ᄒᆞ옵고 황상의 은덕을 갑플가ᄒᆞ
ᄂᆡ다 上이 大희曰 짐이 경의 忠셩과 용ᄆᆡᆼ은 가샹ᄒᆞ거니와 경은 슈ᄒᆞ지
臣이라 젼장에 보니미 ᄯᅥᆺ〻지 못ᄒᆞᆯ ᄯᅳᆺᄒᆞ다 시랑이 ᄌᆡ拜曰 臣子道리에 난시
을 당ᄒᆞ와 ᄎᆞᄅᆞᆯ 현ᄒᆞ옵기ᄂᆞᆫ ᄉᆞᄉᆡᆼ ᄒᆡ因부도소이라 上이 그 ᄯᅳᆺ을
짐쟉ᄒᆞ셔 즉일 시랑으로 大元帥을 封ᄒᆞ시고 인검과 졀월을 쥬시며
장졸 ᄇᆡᆨ만을 조발ᄒᆞ여 ᄒᆡᆼ군ᄒᆞᆯᄉᆡ 先봉장 韓雄이오 左익장 黃
奉鎭이오 右익將 郭卓이오 後軍將 趙秉鎬와 元帥 黃金투구에 홍젼
갑옷 입고 쳥이오 즁에 두러시 안ᄌᆞ니 참 일ᄃᆡ 英雄이라 天子 城外

에親臨ᄒᆞ샤元帥을뎐별ᄒᆞᆯ셰上이부잠白부의장대져ᄇᆞᆯ그남대을향복
밖유이도하놈을부ᄌᆞ노라元帥비ᄀᆞᄒᆞᆫ친군졸ᄂᆡ여러날만에향
州地境ᄯᅡᄒᆞᆫ듸평원광야에대진이엄슉ᄒᆞ지라元帥대셰을살펴
봉격書을보시고ᄃᆞ홍을지휘ᄒᆞ니대장졸날릐진문을열고大
홈을드거ᄂᆞᆯ원슈선봉을명ᄒᆞ니뎝응ᄒᆞ라ᄒᆞ되한웅이장창을
들고陣門에出ᄒᆞ니대장을ᄭᆞ지져너의天의을거살리고天朝을범
ᄒᆞᄂᆞ뇨今日너의목을一劒에버혀皇上의근심을덜이라ᄒᆞ니대장졸날릐
달여들러ᄊᆞ와불과슈합에대將의칼리번덧ᄒᆞ니원슈선봉의머리ᄯᅡ
ᄒᆞ에써러지ᄂᆞᆫ지라원슈한웅죽음을보시고諸將을불너대將졸날은
금셰명장이곤다뉘능히디대ᄒᆞ리오장ᄒᆞ에한창슈츌白ᄒᆞ향은小將

의즁형이옥小將이陣문에出ᄒᆞ와뎍장버혀즁형의원슈을갑흘가ᄒᆞ와山이다모다복이으련무장ᄒᆞᆫ동이라원슈ㅣ出뎐ᄒᆞ라ᄒᆞᆫ되ᄒᆞᆫ동이자문외에나셔ᄯᅥ뎍장을디위ᄂᆡ반뎍즁날은ᄲᆞᆯ이나와갈ᄂᆞᆯ부드라ᄒᆞ는소ᄅᆡ江山이움자이나ᄃᆞᆺᄒᆞ더라즁날리ᄒᆞᆫ동을ᄲᅡ호ᄒᆞ와三十여合에不결승부라元帥쟝ᄃᆡ에셔양진형셰ᄅᆞᆯ살펴후에ᄒᆞᆫ동의형셰쇠진ᄒᆞ믈보고징을쳐軍을거두워ᄒᆞᆫ동을ᄯᅥ보ᄒᆞ고元帥七星그린투구에용문甲옷입고쟝창는우에놉피들고봉의눈부릅ᄯᅳ고陣門밧出ᄒᆞ여ᄃᆡ매曰天子ㅣ너의을ᄃᆡ大갓치ᄀᆞᆨ향ᄒᆞᄉᆞ敎恩은이갑ᄒᆞ쳐ᄃᆞ렬너의강포만밋고親의을ᄒᆡᄒᆞ여天道ᄂᆞᆯ거부심ᄒᆞ리오ᄒᆞᆼ명을모ᄅᆞ너의손멸ᄒᆞᆯ터인즉ᄲᆞᆯ이나와항복ᄒᆞ라ᄒᆞᆫ되뎍將즁날리원슈의말을듯고ᄃᆡ로즁날리陣門에出ᄒᆞ

여大呼曰하날리우리大王의영웅셩덕을니어ᄉᆞ암약ᄒᆞᆫ병젹을ᄉᆞ로
잡고天下을泰平코져ᄒᆞ므로大軍到處에望風歸順ᄒᆞ여널너은天
셔을모ᄅᆞᆫ감이항거코져ᄒᆞ니하ᄂᆞᆫ긔야거면도을모로미화ᄒᆞᆯ달녀
들려쳘퇴로원슈을친듸원슈봉을손속와쳘퇴을피ᄒᆞ며잔
사ᄅᆞᆷ을들러ᄒᆞᆫ숨을쥐고쳘퇴로갈을ᄲᅡ나지라원슈긔운을
가다드미좌충우돌ᄒᆞ며동날을질러져ᄒᆞ니그날니몬져미갓근칼
빗쳔번긔갓치뎍진장졸머리츄풍낙엽갓튼지라ᄒᆞ날리져당
치못ᄒᆞ니本陣으로도망ᄒᆞᆫ듸원슈ᄯᆞᆯ로지아니코本진에도라와졔장
을도라보며曰뎍將무에가비범ᄒᆞ니쥴셔간파ᄒᆞ리어려올거라리
니ᄒᆞᆫ모계로써뎍진을엄살ᄒᆞᆷ이올타ᄒᆞ고將졸을난와東西南北

미복ᄒᆞ여 원슈장 시에서 잠관 ᄌᆞ우더니 비몽간에 ᄒᆞᆫ 노승이 들어와 원슈을
불曰 元帥 來日 대장을 운곡에 드지 말고 뒤영을 엄살ᄒᆞ는 밤이리 훈호세 대
장을 치리되면 강이 생포ᄒᆞ오리다 ᄒᆞ매 꿈을 ᄭᆡ되 엄리ᄂᆞᆫ 元帥 층을 여어 諸
將과 議曰 今事 如此ᄒᆞ니 來日 夜 대장을 겁박ᄒᆞ리이라 ᄒᆞ매 장졸을 단속ᄒᆞ
더라 대장 흉노의 算子을 보고 曰 맹장희 운은 밤 상ᄒᆞᆫ ᄉᆞ람이 만ᄒᆞ는 그 묘계로써
잡으리라 ᄒᆞ며 剤장을 呼曰 그ᄃᆡ 等은 雲谷에 미복ᄒᆞ엿다가 明日 夜深ᄒᆞᆫ
後 明將을 유인ᄒᆞ여 雲谷으로 들러보내는 뒤을 엄살ᄒᆞᆯ리신ᄂᆞ 그ᄃᆡ 等
군병을 거ᄂᆞ려 明將을 치라 ᄒᆞ는 약속을 정ᄒᆞᆫ 後에 날리 ᄇᆞᆯ그ᄆᆡ 흉노의
나와 ᄊᆞ홈을 도〻거ᄂᆞᆯ 원슈 陣門을 구지 닷고 接戰치 아니ᄒᆞ고 사日 合ᄒᆞ며
陣前에 出ᄒᆞ여 대장을 ᄭᅮ지져 曰 무지ᄒᆞᆫ 胡흉노은 昨日 未결ᄒᆞᆫ 雄雄을 결

하ᄀᆞᆺ ᄒᆞᆫ 말을 ᄃᆞᆯ어 出ᄒᆞ거ᄂᆞᆯ 흥날되 상각ᄒᆞ되 明將이 今日에 출뎐ᄒᆞ므나
외셰을 成ᄒᆞᆷ이라 ᄒᆞ여 내ᄃᆞᆯ라 원슈을 마ᄌᆞ 太卒合에 이러ᄀᆞ 밤이 깁퍼 三更이
이라 흥날되 셔 도망ᄒᆞ여 雲谷을 入ᄒᆞ거ᄂᆞᆯ 元帥 參事을 상각ᄒᆞᆫ 그 자ᄎᆞᆺ
ᄎᆞ사 난퇴ᄒᆞ라 사 雲谷 어구에 入ᄒᆞ여 흥날의 뒤을 ᄯᆞᆨ고 유진ᄒᆞ여 ᄯᅥ잇
셔 흥날되 원슈ᄅᆞᆯ 유인 雲谷에 入ᄒᆞᆫ 줄 알고 운목 등을 나ᄂᆞᆯ려 ᄒᆞ되 뼝진
이 뒤을 ᄯᆞᆨ어 유진ᄒᆞᆫ 곤 츄뎌ᄒᆞ려니 ᄲᅡ츈 ᄃᆡ장이 운목 안에 유진ᄒᆞ고 원
슈 入ᄒᆞ경을 기ᄃᆞᆯ리더니 ᄲᅡ츈얼 원디장이 入ᄒᆞ여 츄뎌ᄒᆞ거ᄂᆞᆯ 뼝진 장슈
쥴 알고 웅포일 셩에 ᄃᆞᆯ녀 ᄯᆞᆷ뎐ᄒᆞ니 흥날 曰 金장군 날을 모ᄅᆞᄂᆞᆫ다 ᄒᆞ되
함셩 듕이라 흥날 말을 도ᄌᆡ 못ᄒᆞᆫ 齊회 되ᄋᆡ 흥날되 서젹을 되ᄒᆞ여 산
을 넘어 도망ᄒᆞ거ᄂᆞᆯ 원슈 흥날 도망ᄒᆞᆷ을 보고 압흘 ᄯᆞᆨ아 치니 흥날의

됴슈仲에셔려거걸원슈칭ᄒᆞᆫ도버혀들어흉노의머리ᄇᆡ혀들북을쳐
니四面伏兵이一時에ᄃᆞᆯ녀들러ᄒᆡᆼ쟝을외위ᄉᆞᆫ左衝右突ᄒᆞ니셔우大경
ᄒᆞ여부쟝괴한으로원슈를막거ᄂᆞᆯ원슈능쳐ᄒᆞ여괴한을一合에버혀들
고졔쟝을ᄒᆞ여곰셩문을ᄭᅢ치고셩즁에入ᄒᆞ니셔우잡으라ᄒᆞᄂᆞᆫ소리산
악이진동ᄒᆞ더라셔우ᄃᆡ경ᄒᆞ여남문을열고南海로도망ᄒᆞ거ᄂᆞᆯ원슈쟝졸
을지휘ᄒᆞ여後을ᄯᆞ로다가셔우船을잡고北國을향ᄒᆞ믈보고회軍
ᄒᆞ여荊州城에入ᄒᆞ니諸將等이ᄃᆡ쟝졸등을ᄆᆡ히合兵ᄒᆞ엿거ᄂᆞᆯ元帥城中
百姓을安무ᄒᆞ고牛양을잡아將졸을위로ᄒᆞ고승젼ᄒᆞᆫ捷書을天子ᄭᅴ
하예올녀보ᄂᆡ고南海司守의게分付ᄒᆞ되젼船百餘척을ᄃᆡ령ᄒᆞ라ᄒᆞᆫ추
ᄂᆡᆯ[illegible]도ᄒᆞ니單于를ᄯᆞ로고北國을향ᄒᆞ여라ᄒᆞ엿天子元帥詔書을

보시고 그쌔ᄒᆞᆫ 兵書에 ᄒᆞ엿시되 大元帥張遐雲은 일장 글월을 皇上 탑하에 올이나니 小臣이 한번 북쳐 ᄃᆡ장 ᄒᆞ날라 계란퇴 募을 ᄲᅢ혀 형쥬城을 안무ᄒᆞ고 션우을 잡으려 ᄒᆞ맘져 션우 도망ᄒᆞ와 고쳔國으로 가옵기에 션우을 作차고 고쳔國을 가옵 皇上은 臣의 쳡書을 기달리옵소셔 ᄒᆞ엿더라 上이 大喜曰 장희운은 진실노 곰에 드믄 츙신이요 무엇술노 그 공뇌을 갑프리오 칭찬불리ᄒᆞ시더라 각셜 北흉노 강셩ᄒᆞ되 ᄆᆡ양 즁원을 침범코져 ᄒᆞ더니 남션우 리방ᄒᆞ여 荊州을 아셧다 ᄒᆞᆷ을 듯고 죠신을 모와 의논曰 이제 션우 남은 즁원을 범ᄒᆞᆫ 우리은 作란 北은 즁원을 치면 분명이 셩공 하리라 ᄒᆞ고 정兵 七十萬을 조발ᄒᆞ니 북특달노 션봉장 솔등돌슈ᄂᆞᆫ 즁軍을 삼아 녹문관을 ᄭᅵ치고 황셩을 향ᄒᆞᆯᄉᆡ 도쳐에 당ᄃᆡᄒᆞᆯ 쟈 업더러

라 잇ᄯᅢ 셩화 十三年 十二月이라 天子 南單于 平定ᄒᆞᆫ 일노 泰平宴을 배설ᄒᆞ고 朝臣을 모와 즐기시더니 마츰 졀도ᄉᆞ 李東植이 장계를 올여거ᄂᆞᆯ 世흉奴 상셩ᄒᆞ여 七十万 大兵을 거ᄂᆞ리고 玉門관을 쇄파ᄒᆞ고 황셩을 향ᄒᆞ오니 명장을 所로ᄒᆞ와 ᄯᅥᆨ 兵을 ᄡᅡ흐 승쳡ᄒᆞ엿거ᄂᆞᆯ 上이 大驚ᄒᆞᄉᆞ 左右을 도라보와 曰 世凶奴 任ᄒᆞᆫ 장의 쇠약ᄒᆞᆫ ᄯᅢ을 승ᄒᆞ여 황셩을 침범ᄒᆞ니 장ᄎᆞᆺ 엇지ᄒᆞ리오 ᄒᆞ시고 공부시랑 郭희로 大元帥을 봉ᄒᆞ여 졍兵 百万을 ᄲᆞᆯᄒᆞ여 당일 ᄒᆡᆼ軍ᄒᆞ라 ᄒᆞ니 과희 황은을 九배ᄒᆞ고 장졸을 거ᄂᆞ리고 북문관을 향ᄒᆞ더라 ᄎᆞ셜 大鳳이 金華山 白雲암에 이셔 百家書와 六道 삼약을 숙독ᄒᆞ더니 百은 비회지ᄲᆞᆯᄒᆞ여 노ᄅᆡ 한 곡조을 지어 불러니 그 노ᄅᆡ에 ᄒᆞ여씨되 西山에 두견조은 불여귀을 슬피 울고 임 간 ᄯᅢ 오작옴은 ᄯᅡ로을 일흔ᄯᅢ 北海 大붕조은 南天

을ᄒᆞᆫ 향ᄒᆞᆫ 楊柳枝上 황잉조은 환우셩쳬난 소ᄅᆡ 계우든 감ᄉᆡ을 셰화ᄇᆞᆯ
동봉황조은 곡쇠을 ᄯᅡ니 ᄲᆡᆨ고 츅술 ᄯᅡ ᄲᆡᆨ난 任자 노ᄅᆡ을 자ᄒᆞ쥐 노僧이 공
가노ᄅᆡ을 화답曰 가마지 ᄯᅡ 포은 솔 쳔 ᄯᅡ은 두견조 토혈든 무슴 얼고 世海더봉
조은 구리는 고지 ᄯᅡᆫ은 녀교리 빗셜 갈할 리을 아ᄯᅩ 山中금슈 흥봉황이 웃듬
이라ᄒᆞᆫ즉 대봉이 老僧압희 나아가 ᄉᆞ뢰曰 小子 우연이 仙師의 놉흔 은덕으로 八
年을 의탁ᄒᆞ와 ᄌᆡ쳥의 집ᄉᆞ온디 늙ᄀᆞ 우연이 심ᄉᆞ 불안ᄒᆞ와 노ᄅᆡᄒᆞ여 속젹셰샹
계앙 小子의 신술 아신 노ᄅᆡ근 화답ᄒᆞ셔니 환몸 감ᄉᆞ니라 老僧曰 小子 인운이
미진ᄒᆞ여 小僧과 山中에 八年同居ᄒᆞ에시나 이졔 世흉노 참범ᄒᆞ여 공ᄌᆞ 더공을 이울
셰라 셰샹에 나가 父母을 ᄯᅡ나근 大明 사즉 반졸 졔ᄒᆞ라 ᄒᆞᄆᆡ 대봉니 벼ᄉᆞᆯ 션ᄉᆞ의
고ᄒᆞᆫ ᄒᆞ셔 미예 츄ᄒᆞ을 엇듸든 사노면 成功ᄒᆞ고 父母을 ᄯᅡ나 뢰가 ᄒᆞ니 老僧曰 오

곳치 농셔ᄒᆞᆫ가 ᄒᆞ면 ᄌᆞ연 셩공ᄒᆞᆯ 도리와 父母 만날 도리 이슬 거시니 지체 말고 쎄
상에 出ᄒᆞ라 ᄒᆞ고 ᄒᆞᆫ 솜에 술과 너여ᄒᆞ며 ᄇᆞᆯ사라가 셔강ᄒᆞ쉬 편ᄒᆞᆫ 셰을 리ᄒᆞ라
大鳳이 쳬읍ᄇᆡᆯ 八年을 술ᄒᆞ에 ᄂᆞᄉᆞ다사 졸지에 셜셩좌ᄒᆞ을 여ᄂᆞ ᄒᆞ외되
가의 ᄯᆞᆨᄒᆞ오리 가ᄒᆞ여 ᄒᆞᆯ 슈 업셔 金華山을 ᄯᅥ나 농쳐ᄂᆞᆫ 향ᄒᆞ더라 각셜 此
흉노 大兵을 거ᄂᆞ리고 皇城으로 올나 오다가 明將 郭泰遲 大兵을 보고 胡王
이 先封將 동돌ᄒᆞ을 ᄲᅧᆼᄒᆞ여 ᄲᅧᆼ진을 디뎍ᄒᆞ라 ᄒᆞ니 동돌ᄒᆞ 응셩ᄒᆞᆯᄁᆞ
ᄒᆞ여 ᄭᆞ즈ᄉᆞᆯ ᄒᆞᆫ 슈 ᄒᆞᆷ이 못ᄒᆞ여 ᄲᅧᆼᄌᆞᆼ을 ᄲᅦ히 들고 좌츙우돌ᄒᆞ니 ᄲᅧᆼ진장졸
리 한오을 ᄎᆞ리지 못ᄒᆞ여 ᄀᆞᆨ을 ᄃᆞᆼ이 뫼 ᄭᆞ더라 호왕이 승세ᄒᆞ여 황셩을 ᄂᆞᆯ나
ᄒᆞᆫ슈 위엄이 츄샹 갓더라 각셜 이시랑 부인 양시 시랑과 ᄌᆞ식 ᄃᆡ봉을 ᄯᅥᆨ슌 ᄂᆞᆫ
보낸 후 눈물노 셰월을 보니더니 북흉노 반ᄒᆞ여 황셩을 침범ᄒᆞᆫ다 ᄒᆞᆯ

죄드쳐에 노ᄅᆡ이 심ᄒᆞᆫ 즁에 시랑 부인 양씨도 피란 가난 쳐이라 뭇듯 보던 ᄯᆡ 갓부
인쳔에 와비 죽을 부인은 순비을 모ᄃᆞ시난 나가 승삐은 긔즉 장민동 장한 암자이
황승졔 시비 난향이 곤순이라 양씨 부인 ᄯᆞᆯ 나도 션ᄒᆞᆫ 피란 가난 터에 너을 ᄲᅡ나
나승졔을 ᄆᆞᆫ난ᄒᆞ다 나은 시랑과 공즁을 ᄯᅥᆨ손 ᄀᆞ 갑산 듕에 승셔 블나 죽ᄒᆞᆫ
한ᄒᆞᆫᄒᆞ더니 졀ᄒᆞ여 흉노 난을 ᄆᆞᆫ나 이지경에 이러ᄒᆞ시니 장승졔 쌍쳑 연의 환을
피ᄒᆞ여 도ᄆᆞᆼᄒᆞ엿다 ᄒᆞ더니 그간 뭇ᄯᆞᆫ 들러난 순난향니 올여 ᄇᆞᆯ 장승졔 남복을
환착ᄒᆞ고 本宅에 잠간 단에 가신 후에 지우금 소식 모ᄅᆞ나니라 ᄒᆞ고 니날 드ᄅᆞᆫ 환
ᄒᆞ더 졍쳐 업시 가다가 三日만에 書ᄲᅡ여에 다ᄃᆞ르니 한놀노 ᄯᅥ 승이 노쳐 널
부인이 뭇잘 道人은 쇄는 졀의 계시ᄆᆡ 원되을 사난 오사에 승ᄯᆞᆯ 손승은 봉
ᄲᅧᆼ암에 낫승 노승사에 가승다가 졀노 가거이와 부인은 원되 계시온데 무ᄉᆞ일

노니곳에왓나니사부인딸우리놋북흥노난을난을만나졍처업서쏜
이십견이와부군나니춘낭의화업난니팔을주ᄒᆞ여죽서업슨쳐한뒤에
눈딸부인계앗셔살못지졍이업셔쳔손능을ᄯᅡ라가슴셔ᄒᆞ니부인
딸쳔흰은ᄒᆞᆫᄉᆞ을ᄯᅡ나의화로물릐ᄒᆞ락ᄒᆞ셔니은혜갑허ᄒᆞ여나라ᄒᆞᆫ
부인이난향을보고딸너난二八靑春이라봉모화지절리비범ᄒᆞ니차쳐
ᄂᆞᆫ나가쇠어견비필을ᄯᅡ나화락이저너지나을ᄯᅡ라宮中으로入ᄒᆞ여허ᄉᆞᆫ
셰월ᄒᆞ거ᄲᅡ科ᄒᆞᆫ뒤난향니쳔음딸소비연젼에왕셕년환ᄯᅡ나셔로흠을
누니ᄉᆞ자가난서을ᄯᅡ나쳔흰은ᄂᆞᆫ부인을ᄯᅡ나시며ᄉᆞ셔을한사거ᄂᆞᆫ거너ᄉᆞᆲ
다가한고향할ᄯᅥᆺ시ᄂᆞᆫ니어거부인을부리시ᄂᆞᆫ소비혼ᄌᆞ위되ᄂᆞᆫ갈ᄒᆞ려
가한니부인딸너정절리굴려ᄒᆞ니고향을한사거ᄂᆞᆫᄒᆞᄌᆞᄒᆞᆫ매ᄉᆞᆼ을

쎠타봉명암에들러살셰좌우경계살펴보니너울〻쳔말화ᄯᅵ우질ᄂᆞᆫ
계슈화나을본반기난덧불근셕롤ᄂᆞᆫ엄은쳥계슈자향ᄒᆞ난듸동
편에은〻이들니난경쇠소리구름밧게들니러라寺門에당도ᄒᆞ여ᄌᆞ셰이살펴
보니黃金大字로두러서봉암이라현판을부쳣더라ᄂᆡ셔졔승이나
와ᄭᆞᄌᆞ라실좌판ᄒᆞᆫ후에又반을들리거ᄂᆞᆯ부인이졔승의게ᄉᆞ례曰쥭각이현
경에이러〻은혜을갑지혹황공감ᄉᆞᄒᆞ옵ᄂᆞ니라老僧曰부인도산즁에
계셔ᄂᆞᆷ편부득이삭발위승ᄒᆞᆯ터니와부인의쳐분이어더ᄒᆞᆸ시오부인
이ᄭᆞ지못ᄒᆞ여삭발ᄒᆞ여노승의상졔되근난ᄒᆞᆼ은삭발ᄒᆞ여부인의상졔삼
고감ᄉᆞ착복을졍이ᄒᆞ근불젼에나아가분향졔비ᄒᆞᆫ후에사향과디봉을ᄲᆞᆯ
원ᄒᆞ러라각셜디봉이ᄂᆞᆷ셔에다〻ᄂᆞ니날낙ᄒᆞᆫ후에흑운이ᄯᅳᆫ쳔ᄒᆞ여

地尺을분별치못ᄒᆞᄂᆞᆫ디홀노ᄒᆞᆫ바위을의지ᄒᆞᆫ날ᄉᆡ기을긔ᄃᆞ리
더니그익ᄒᆞ여굴움회여지며明月을明낭ᄒᆞ련이홀련녹의홍
上ᄒᆞᆫ一미인이앙폐와안전ᄂᆞᆯ공ᄌᆞ핑아ᄒᆞ여미人을ᄭᅮ지져曰鬼神이야사
람이어든大將父안흉을ᄇᆡᆺ난게ᄒᆞ거마라그미ᄉᆞ이간풍ᄒᆞᆫ웃더ᄒᆞᆫ
先비淸포을잉고書冊을ᄉᆞᆫ의들곤앙폐에와안전ᄂᆞᆯ공구問曰간ᄉᆞ
ᄒᆞᆫ요귀가환형眩火ᄒᆞ여ᄉᆞ람을조롱ᄒᆞ여馬當니神將之呼ᄒᆞ여요귀
을잡아風道옥에보니리라ᄒᆞ되그先비ᄯᅩᄒᆞᆫ간곳읍고뇌城兵ᄯᅥᆨ
이진동ᄒᆞ며陰風니〻러난ᄂᆞᆫ곳줴웃러ᄒᆞᆫ將帥구갑쥬ᄒᆞᆫ앙폐와
ᄉᆡ견ᄂᆞᆯ공구正신을찰려ᄭᅮ지目曰大不氏장이예뎐鬼神이웃지大람
을놀되던ᄂᆞᆫ그將帥읍ᄒᆞ여曰小將은古韓將일음이라當年에

自원븨前ᄒᆞ여北胡를治다가不行ᄒᆞ여원혼되엿기로每양報仇
ᄒᆞ외을원ᄒᆞ더니今日夜에공ᄌᆞ를ᄭᆡ오미ᄌᆞ會을到列ᄒᆞ여ᄒᆞᆫ女人
되고ᄒᆞᆨ先鋒도되거난公子에心腹을삼지ᄒᆞ시라英雄坐定ᄒᆞ실멀
可伊알터니온ᄯᅵ公子ᄂᆞᆫ투구와갑쥬을가知고出兵ᄒᆞ와北胡乙消滅
ᄒᆞᆫ願ᄒᆞᆫ을위로ᄒᆞ시面公子에大功이千秋에由前ᄒᆞᆯ션시요小將에
慶千年외슈을갑풀가ᄒᆞ노라ᄒᆞ며月光투구와龍鱗甲압페노ᄒᆞ며
因想不見以여ᄂᆞᆯ公子神將에道음을짐작ᄒᆞᆫ甲쥬을너두워간仇
한ᄒᆞᆨ날리발션ᄂᆞᆯ東西을ᄯᅥᄂᆞᆫ數日后에식平地에得達ᄒᆞ여젹〻無人
處에日匹一（四）오ᄎᆞ馬소리열벽역지르며公子를본ᄲᅵ기ᄂᆞᆫᄃᆞᆺ비굽을
허위고ᄇᆞᆯ다들거ᄂᆞᆯ공ᄌᆞ大喜ᄒᆞ여말다려경戒曰天出龍

馬ᄒᆞ심의 맛當이 앗가 잇ᄂᆞᆫ니 네가 비록 감심이ᄉᆞ ᄒᆞᆫ원니
티 몸을 앗거든 ᄆᆞᆯ되를 들러니 탈되언지라 ᄒᆞᄂᆞ니 그 ᄆᆞᆯ되
應聲ᄒᆞ며 ᄆᆞ리를 들러 탈되에 언걸ᄒᆞᆯ 公子曰ᄒᆞ날되 동ᄉᆞ갸
ᄒᆞ라 소ᄅᆡ 馬를 得ᄒᆞ앗ᄉᆞ오니 可以成功ᄒᆞ리라 ᄒᆞ시니 馬를 어로
만지든니 ᄒᆞᆫ 老人이 일그노복으로 ᄒᆞ야금 ᄒᆞᆷ긔 안장을 갓다가
公子에게 빨밧치랄 공조ᄒᆞᆫ 종을 어려 ᄀᆞᆺᄃᆞ니 百희흥원으로 나가쳔
자을 도와 온 흉을 빠새나리ᄒᆞ햐호고 산곳 엽거ᄃᆞᆯ 大봉이 大喜ᄒᆞ
공중을 향ᄒᆞ되 무슉이ᄉᆞ례ᄒᆞ고 갑쥬을 엽고 ᄲᆞᆯ리 올나 ᄎᆡ을 치
이 공중에 올나 풍雨 갓치 ᄃᆞᆯ나 산니 ᄡᆞᆫ이 장天이 眼前에 얼넌〻 햐
더라 각설 朝王이 긔州을 지네 황셩으로 올나올ᄉᆡ 皇帝 大경햐

하ᄉᆞ兵부상셔진ᄐᆡ열노대장을막으라ᄒᆞ시고金陵山城으로避亂
가실ᄯᆡ의何胡王이皇城에入ᄒᆞ야진ᄐᆡ열을버히고종묘ᄉᆞ직에츙
화ᄒᆞ고장졸을치죽하며金陵으로住차산이ᄒᆞᆫ후다大明ᄉᆞ직
이일됴에망케되여스되막을길업ᄉᆞ니엇지ᄒᆞᆫ심치안이리오ᄒᆞ이금
능에유ᄒᆞᄉᆞ대ᄯᆡ위급ᄒᆞᆷ믈돌ᄂᆞᆫᄒᆞ시고城門을구지닷고됴웅치안
이ᄒᆞ시거날대장묵특달리大兵을처죽ᄒᆞ며四面을외워싸고
城門을셧치고셩즁에돌入ᄒᆞ며左右츙돌ᄒᆞ니빵陣將卒머리秋
風落葉일네라ᄯᅩ何右丞相王희皇上ᄭᅴ쥬白사외위급ᄒᆞ오니급히황
伏ᄒᆞᄉᆞ이라ᄒᆞ거ᄂᆞᆯ皇帝罔極ᄒᆞᄉᆞ王쇠을목에걸고降書을품에
품고陣門外로나가실ᄯᆡ城中百姓과上下軍卒이앙天痛哭ᄒᆞ니白日

되無光ᄒᆞ고江山이含淚ᄒᆞ더라이ᄯᆡ何皇帝통곡曰장원슈ᄂᆞ셔스면이지경에밋지이러되오하시며용누을흘며웅풍을ᄯᆡ서더라胡王은장ᄃᆡ에놉피안ᄌᆞ명졔의降書을치쵹ᄒᆞ난호등이츄상갓더라ᄎᆞ셜李公子馬上에놉피안ᄌᆞ皇城으로향ᄒᆞ더니화룡도샨곡에일른즉日落黃昏에風雨大作ᄒᆞ거ᄂᆞᆯ避雨ᄒᆞ랴고한비각ᄎᆞᄌᆞ들러가쉬더니千兵万馬가碑閣을외위결陣ᄒᆞ며일원大將이靑龍刀눈우에번ᄯᅳᆺ들고홍젼포봉두구에덕도馬비기타고三角슈거ᄉᆞ리쓰고호통일셩에大呼曰어ᄯᅥ한ᄉᆞ람이관ᄃᆡ남의집에들러와무례이안잣냐난은三国時節漢水뎡侯관雲將이라한ᄃᆡ公子大驚ᄒᆞ여伏地ᄉᆞ죄曰에두운밤에將軍座定ᄒᆞ시믈ᄭᆡ지못ᄒᆞ와쓴이죄을용셔하옵소셔ᄒᆞᆫᄃᆡ관공

ᄆᆡ나ᄂᆞᆫ 魏王조〻와 吳王孫권을 버혀 天下을 平定ᄒᆞ고 漢室을 회復
ᄒᆞ져ᄒᆞ엿더니 天運이 不幸ᄒᆞ여 ᄯᅳᆺ슬 일우지 못ᄒᆞ고 간ᄉᆞᄒᆞᆫ 呂蒙의계
잡핀바 되여 ᄉᆞᄯᅥ지 동ᄒᆞᆫ치 ᄯᅡᆼ이 되은니 못은 졔갈무후 장ᄉᆡᆼ을
죽을 잡음 놋ᄒᆞᄂᆞᆫ 곱피왓던 華龍道라 後大이 碑閣을 ᄂᆞᆯ을 위ᄒᆞ여
지낫더니 ᄂᆡ 靈魂이 의지ᄒᆞ엿거니와 今日 너의 상을 본즉 大明ᄉᆞ직 회복
ᄒᆞᆯ 英雄이라 明帝 시방 胡王의계 ᄶᅩᆺ기여 金陵城에 계시ᄂᆞ 明日 午時에 降
伏ᄒᆞᆯ 거신이 ᄂᆡ 너을 靑龍刀을 주ᄂᆞ니 ᄲᆞ로 곰능으로 갓셔 天子을 구
원ᄒᆞ고 胡王을 버혀 大功을 일우라 ᄒᆞ고 간ᄃᆡ 업거ᄂᆞᆯ 몸ᄌᆞ 精神을 ᄎᆞᆯ
려 살펴보라 ᄯᅥ 비石에 黃金大字로 ᄒᆞᆫ슈뎡후 관공 만셰 不忘비라 ᄒᆞ엿
거ᄂᆞᆯ 곳 일어나 비ᄉᆞᄒᆞ고 졀귀 일슈을 지어 비각에 붓쳐산니 ᄒᆞ엿스되

千秋에石不朽 次來大鳳手
遺恨이未斬曹 更把青龍刀 이글 쓰ᄂᆞᆫ 쳔ᄌᆞ에 돌리 ᄡᅥᆨ지 안이ᄒᆞᆫ
ᄭᅧ친 한이 도ᄀ을 버혀지 못ᄒᆞᆷ이로라 버금은 뒤 봉의 손이 왓셔다
시 쳥룡도ᄅᆞᆯ 잡아 ᄯᅩ다 동방이 ᄇᆞᆯ그며 공ᄌᆞ 말을 ᄎᆡ쳐 곰ᄂᆞᆼ을 향
ᄒᆞᆯ셰 ᄇᆞᆯ 달려 경계ᄅᆞᆯ 너비ᄒᆞᆫ 감셩이나 범馬와 다ᄅᆞᆫ지라 이ᄯᅢ 皇上께
압셔 흉노의게 곤핍ᄒᆞ시고 大明社稷이 시각에 잇거ᄂᆞᆯ 너 황을 다ᄒᆞ여 今
日金陵城을 午時前當到ᄒᆞ라 ᄒᆞ신 急히 ᄯᅥ나 비ᄒᆞᆫ 듯처 行ᄒᆞ여 양ᄌᆞ
ᄀᆡᆼ을 건너 봉황抬 다ᄃᆞᄅᆞ니 日色이 四時末午時初나 되엿ᄂᆞᆫ지라 金陵을 바
라보니 ᄃᆡ풍이 ᄯᅡ 산평야ᄒᆞᆫ 곰고 함셩이 山옥이 문어지ᄂᆞᆫ 듯ᄒᆞᆫ지라 장ᄎᆞ
분리흉 친ᄒᆞ여 쳥룡도 놉희 들고 ᄭᅬ여 왈 반댝 흉노ᄂᆞᆫ 들ᄅᆞ라
大明国忠義將軍李大鳳을 아ᄂᆞᆫ다 ᄒᆞ며 달여들 ᄯᅢ 쳔장 즐을 ᄲᆡᆨ은

풀비듯ᄒᆞᆫ 장ᄃᆡ군들 러오려 ᄒᆞᆯ ᄉᆡ 胡王이 장ᄃᆡ에 놉피 안ᄌᆞ 병졔의 ᄒᆞᆷ셩을
졔흉ᄒᆞᆫ뎌 뭇드ᄂᆞᆫ 원수장이 장졸을 뭇ᄶᅦ 들러오려 ᄒᆞᆯ 졔 장졸을 명ᄒᆞ여
싸어와 ᄃᆡ장 묵특과ᄅᆡ 응셩 出馬ᄒᆞ여 ᄯᅡ지졔 曰 너ᄂᆞᆫ 無名지 將이라 天時
을 모ᄅᆞᄂᆞᆫ 감이 陣中에 入ᄒᆞ니 횡〻하ᄂᆞ락〻ᄒᆞ며 ᄃᆡ쟝ᄒᆞ리ᄂᆞᆯ 품ᄂᆞᆫ 靑龍刀
놉피 들러 ᄃᆡ장을 치니 금광이 ᄲᅵᆺ난 곳에 ᄃᆡ장 묵특과의 머리 마下에 ᄯᅥ러
ᄂᆞ지 져ᄒᆞᆫ ᄃᆡ장 동돌슈 묵특과 죽음을 본 ᄀᆞᆯ며 들러 大呼曰 北호 大將을 아
아ᄂᆞᆫ다 하ᄂᆞᆯ리 날 ᄂᆡ신 英雄을 네시九 무도한 병졔을 ᄉᆞᄂᆞᆫ 장은 天下을
동일ᄒᆞ계 ᄎᆞᆷ이라 ᄒᆞᆫ 장창 비슴은 ᄀᆞᆯ며 들리ᄂᆞᆯ 못ᄀᆞ ᄲᅡ九 슈솜이 ᄂᆞᆷᄂᆞᆫ
여동돌슈 ᄆᆡ리 금光 俟云 ᄯᅥ러져ᄂᆞ지라 胡王이 ᄊᆞᆼ진 형셰을 살피던
ᄃᆡ동돌슈 ᄂᆡ리 ᄯᅥ러짐을 보고 황급ᄒᆞ여 도망ᄒᆞ여 졔쟝은 ᄃᆞᆫ 뒤을

막으라ᄒᆞ매 도망ᄒᆞ거ᄂᆞᆯ 공ᄌᆞ 大呼曰 무지ᄒᆞᆫ 胡王은 닷지 말나 ᄂᆡ 칼을 바드라 ᄒᆞ
니 소ᄅᆡ 天地 진동ᄒᆞᆫ지라 東西南世으至로 좃쳐 횡〻ᄒᆞ니 ᄃᆡ병이 일시에 헛터
져 각〻 목숨을 도모ᄒᆞ여 도망ᄒᆞ니 죽음이 뫼 갓고 피 흘너 강슈 되더라
공ᄌᆞ 호왕을 候元잡으려 ᄒᆞ되 그ᄯᅢ 호왕이 ᄲᆞᆯ니 도망ᄒᆞᆫ지라 以何天子 황
書을 가지신 황복ᄒᆞ려 ᄂᆞ옷치라 가 군듕 일원 大將이 ᄃᆡ병을 거ᄂᆞ리고 호왕을
잡으랴 그 候元가믈 보고 졍신을 진졍ᄒᆞ여 ᄉᆞᆯ펴보니 少年大將이 自
稱忠義將軍이라 ᄒᆞ며 ᄃᆡ장 軍卒을 무슈이 죽임을 보신 左우를
도라보와 曰 ᄃᆡ장을 베히고 횡〻ᄒᆞᆫ 젹장 슈어ᄂᆞᆫ라 左右 奏曰 아지 못ᄒᆞ
압건이와 필연 皇上을 위ᄒᆞ여 ᄂᆡ신 장이나라 황〻ᄒᆞᆫ 더ᄒᆞ여 任天上으로 ᄂᆡ
려온 듯ᄒᆞᄂᆞᆫ이라 ᄒᆞ거ᄂᆞᆯ 上이 大희曰 젹장 유츙렬을 보ᄂᆞᆫ니 군졸을 하

29

여금뒤을 아라 보라 ᄒᆞ시더라 초셜 장원슈 희운 연쳔을 ᄯᅥᆫ 여러날만
에 골쳔国에 다ᄃᆞᄅᆞ니 션우 약간 남은 군ᄉᆞ를 거두워 원슈을 ᄡᅡ다가 당치
못ᄒᆞ여 항복ᄒᆞ거ᄂᆞᆯ 원슈 장ᄃᆡ에 놉피 안ᄌᆞ 션우을 장ᄒᆞ에 ᄭᅮᆯ이고
ᄭᅮ지져曰 니 ᄀᆡᆺᄐᆞᆫ 션우야 天子 덕ᄐᆡᆨ을 망포ᄒᆞᄉᆞ 너의 왕을 무휼ᄒᆞ신니 정
셩을 다ᄒᆞ며 조공을 극진이 ᄒᆞᆷ이 올커ᄂᆞᆯ 한갓 강포만 밋고 텬위을 거ᄉᆞᆯ
인즉 죄상을 ᄒᆡ아리면 ᄊᆞᆯ지 무셕이로되 古書曰 항ᄌᆞ는 불살이라 ᄒᆞ기
로 잔명을 용셔ᄒᆞᄂᆞ니 ᄲᆞᆯ이 다시 외람ᄒᆞᆫ ᄯᅳᆺ슬 버려 황거ᄒᆞ난 폐단이 업시
변 너의 왕을 소멸ᄒᆞᆯ 거인즉 부듸 ᄲᆞᆷ남ᄒᆞᆫ ᄯᅳᆺ슬 두지 말근 忠셩을 다ᄒᆞ여
天朝을 ᄉᆞᆷ기라 ᄒᆞᆫ듸 胡王이 션우 伏地奏曰 쇼장이 죽을 목숨이 원슈의 덕ᄐᆡᆨ
업ᄉᆞ와 잔명을 보존ᄒᆞ옵 텬은이 망극ᄒᆞ옵거ᄂᆞᆯ 엇지 다시 ᄲᆞᆷ남ᄒᆞᆫ ᄯᅳᆺ슬

두ᄂᆞᆯ리샤 ᄒᆞᄆᆡ 황졔와 예관을 올이거ᄂᆞᆯ 원슈 쳡書를 닥가 션우황졔와
동봉ᄒᆞ여 황셩을 보ᄂᆡ고 셩상을 노화 보ᄂᆡ니 單于 밧비 入到ᄒᆞᆫ 본국
을 갈라 ᄂᆞᆺ ᄯᆡ 天子 도셩을 항탈ᄒᆡ 흉의 장군 디봉의 쇼식을 몰나 참지
ᄒᆞ회 ᄡᆞᆺ ᄌᆞᆷ시 아지 못ᄒᆞ와 天神이 도으섬미 ᄀᆞᆫ다 ᄒᆞ시ᄆᆡ 장원슈 쳥녕을
ᄲᆞᆯ 노리 ᄃᆞᆯ리시며 一日은 장원슈 諸將 ᄇᆞᆺ거ᄂᆞᆯ 리갹 進ᄒᆞ니 兵馬都[illegible] 총도독
大元帥 장회운은 도슈 ᄇᆡ비ᄒᆞ엿던 皇上陛下를 뵐을 올이 날이라 匡이
大兵을 거ᄂᆞ리고 荊州에 이러 ᄃᆡ兵을 出회 ᄲᆞᆯ 房 임의 奏達ᄒᆞ여 房견이
와 도젹 파ᄒᆞᄂᆞᆫ 밤이 젹草ᄒᆞᄂᆞᆫ 의와 ᄀᆞᆺᄉᆞᄎᆞ 偈리을 ᄯᆡ지 말이 ᄒᆞ오ᄆᆡ 젼다시자
타난 밤인 고로 션우을 候兵 고간 國에 入ᄒᆞ와 션우을 항복 밧은 南方을 진
무ᄒᆞ여 ᄉᆞᄎᆞ 복원 폐ᄒᆞ은 ᄀᆞᆷ치 ᄲᅡ러서 고계셔 ᄉᆞᆸ將 ᄒᆞ엿더라 上이 大

喜曰張희운의공뇌을무웟슬갑흐리오ᄒᆞ시ᄆᆡ원슈의벼살을도도와
大司馬大將軍兼이부상셔을졔슈ᄒᆞ시고ᄯᅢ관을명ᄒᆞᄉᆞ中路에보ᄂᆡ사
원슈을위로ᄒᆞ라ᄒᆞ시더라ᄎᆞ셜李大鳳이胡王을倭先世海에이런디胡
王이船隻과水軍을江邊에두웟다가ᄒᆞᆷ피칠도륙승을도망ᄒᆞ거날공ᄌᆞ
분함을이긔지못ᄒᆞ여션쳑을잡아ᄐᆞ고匹馬短鎗을칠도승을倭先
삭호왕이공ᄌᆞᄊᆞ홈을보고더욱황겁ᄒᆞ여ᄒᆞᄂᆞᆯ을울러러탄식왈
남의칼릐쥭난이ᄎᆞ라이江水에ᄲᆞ져쥭음이올타ᄒᆞ고물ᄃᆡᄲᆞ져쥭고
졔ᄒᆞ거날공ᄌᆞ몸을날녀호왕의머리을버혀들고ᄃᆡ호을ᄭᅮ지져曰너의
을한칼노合몰ᄒᆞᆯ덧ᄒᆞ나人命이즁흑ᄒᆞ되용셔ᄒᆞ논니너의国의入
ᄒᆞ여호왕쥭음을ᄲᆞᆯᄒᆞ고다서ᄲᆞᆷ남ᄒᆞᆫ侯술두자ᄲᆞᆯ나ᄒᆞᆫ되져쟝군

졸리바비스져ᄒᆞᆫ〻囯으로향ᄒᆞ더라각셜공ᄌᆞ회션ᄒᆞ며즁원을
향ᄒᆞ더니문득狂風이大作ᄒᆞ며一葉扁船이蒼茫ᄒᆞᆫ大海中에가ᄂᆞᆫ바
을모로를니라공ᄌᆞ앙天통곡白水中에죽어뎐몸이용王의힘을입어잔
命保存ᄒᆞ며父母을ᄎᆞᄌᆞ뵈옵고저ᄇᆞ라더니今日作逆風ᄒᆞ며水中에죽
계됫이뉘을원망ᄒᆞ리은니世故을出해成功ᄒᆞ엿ᄉᆞᆫ들水中孤魂
될셧ᄒᆞ니뒤봄의成功함을알이므로죽기ᄲᅮᆫ기달리고十年을ᄲᅥᆼ은듯셔
얼시에허ᄉᆞ로다ᄒᆞ며万頃蒼波에포연강ᄒᆞ니약열ᄲᅡᆫ에一葉船이한곳
에다이거ᄂᆞᆯ살펴보니한셤이라빙돌어덕에ᄯᅵᆫ나뫼ᄉᆞᄲᅮᆫ을두로다
이ᄯᅢ시장ᄒᆞ며슐과을주워먹더니문득ᄲᅡᆯ자최나며곰이한거시나오
거ᄂᆞᆯ살펴보니젼신은ᄉᆞ람갓터나ᄲᅡᆫ신에털이나셔검션갓튼지라졈〻

갓〻이나와공ᄌᆞ계문왈ᄌᆞ공은워되계시오ᄃᆡ무슴일노이곳에왓나잇
가공ᄌᆞ승음을듯고ᄌᆞ셰이본즉과연ᄉᆞ람이라일뻔빤가와ᄃᆡ답왈나
은즁원ᄉᆞ람으로흉노ᄃᆡ兵을侵ᄒᆞ산다가회환하난ᄃᆡ포풍ᄒᆞ여이곳
에왓습거니와노인은ᄌᆞ본이곳에ᄉᆞ난ᄇᆡ뇨노인이ᄇᆡᆨ슈에눈물을흘니며왈
나도中原ᄉᆞ람으로우연이이슴즁에入ᄒᆞ와ᄃᆡ면고ᄉᆡᆼ을지ᄂᆡ오나이곳
은人跡이不到ᄒᆞ와세상소식을못들럿더니天神이감동ᄒᆞᄉᆞᄌᆞ공
을만나고国승음을드르니빤갑기층양업다ᄒᆞ며슬피통곡하거ᄂᆞᆯ공
ᄌᆞ연한ᄆᆞ음에ᄯᅩ참혹ᄒᆞ여눈물을ᄂᆡ옴다시문왈즁원ᄉᆞ람이라ᄒᆞ온이
존셩은누시며거쥬ᄯᅡ호난워되온이ᄭᅡ노인답曰나도ᄃᆡ송도ᄭᅡ다가水中에
쳐ᄌᆞ식을일코겨우목숨이ᄉᆞ라사나거쥬난거유장민동이온ᄃᆡ그간고향일

ᄃᆞᆫ긔ᄑᆞᆯ곳ᄒᆞ나니라공ᄌᆞ쥐파에라서문曰노인이독ᄌᆞ을두웟다가海上에
셔이별ᄒᆞ엿다ᄒᆞ온이ᄌᆞ홍은뉘라ᄒᆞ서ᄂᆡᄌᆞ식의일홈은무엇시온잇가
老人이對曰나의승名은李益이라ᄒᆞ옵고子식에日홈은大奉이오나ᄂᆞᆫ
일즉淸雲에올나벼살리이부시랑에잇ᄉᆞᆸ더니上疏何다가쌍會에찬疏
을입어젹疏로가당가사공놈에흉악ᄒᆞᆫ변을만나ᄌᆞ식을이별할셰에
나이十三世요그後八年을지ᄂᆡ여ᄉᆞ온니이졔헤아라건大〻奉에나이
二十一世라ᄒᆞ거ᄂᆞᆯ大奉이그졔야明박케父親이신줄알고伏知斉曰父親
은웃지ᄌᆞ식을몰나보시난이가ᄂᆡ子ᄂᆞᆫ곳不孝子大奉리大로乡당시랑이
ᄯᅩ한大奉이란말을듯고大驚실色ᄒᆞ며大奉에목얼안고통곡曰大奉이
란말리외말리야네가사라육身이잇ᄂᆞᆫ야죽어魂白이잇ᄂᆞᆫ야玉皇이

갈동ᄒᆞᆫ大鍾天上ᄒᆞ야는야엽나왕이거서ᄒᆞᄂᆞᆫ죵地出ᄒᆞ여나야옹왕의구
핳으든水中에셔소ᄉᆞ나야주듬에사니여다사바람에부치왓나야샴인야샹시야샴
이어던셔지ᄭᆞᆯ은혼이어던함계가ᄎᆞᄌᆞᆯᄯᅢ기절ᄒᆞ샤뒤봉이을ᄃᆞᆫ둘을
근치고父親을븟들고위로曰과이ᄂᆞᆯ혀마옵시고진졍ᄒᆞ옵소셔ᄒᆞ셰父親
얼골을ᄌᆞ셰이ᄉᆞᆯ펴본즉현용과음셩보고든던비라반가옴도리
지업ᄂᆞᆫᄂᆞᆯ루리도ᄒᆞᆯ양업셔半哭半笑ᄒᆞᄂᆞᆫᄯᆞᆯ리父親계옵셔기우
곰안보ᄒᆞ시믄하ᄂᆞᆯ리도으심이라ᄒᆞᆫ듸侍郞이精神을진졍ᄒᆞ며大
봉의手을잡고曰너을水中에잇던줄알아더니이제다시상봉함은明
天이지시ᄒᆞᆫ심이라나은水中에ᄲᅡ져죽은몸을용手가나와구함을입
어다시ᄉᆞᆯ아나셔이슴즁에와파실을유위벅고혹절노죽은고리도잡

아덕으매지우금잔명부지ᄒᆞ노라이쳥용이변ᄒᆞ여괴구ᄒᆞᆫ몸이되야今日
너을과ᄒᆞᆫ이니곳에셔만나니天道無心치안토다大봉이淚을含ᄒᆞ고버
금고왈當初에龍子가求ᄒᆞ여金華山白雲암에의탁ᄒᆞ던ᄯᆡᆯ리며날時
된출알고훈황은나오라가ᄂᆞᆼ쳐에와神將李등을만나甲冑엇고오
交馬와山神만나안장으던ᄯᆡᆯ리며화룡도의와관운만나쳥용刀으던,
後에金陵에得達ᄒᆞ여대장묵득잘과등도슈을出ᄒᆞ여天子求ᄒᆞᆫ
ᄯᆡᆯ리며胡王을侵兵현ᄒᆞ여入ᄒᆞ여胡王斬ᄒᆞ던ᄯᆡᆯ과回船ᄒᆞ여나
오다가逆風ᄒᆞ여이곳에오ᄯᆡᆯ곤을낫〻치告ᄒᆞᆫ되시랑曰나도任ᄒᆞᆫ라날리
도은삼이라엇지감츅지아니ᄒᆞᆯ리요너의世親死生과장ᄉᆞ졔거취을말
슈업ᄂᆞ니답〻ᄒᆞ도다大봉曰이제古国으로도라가시면ᄌᆞ연즁졀을알

거ᄂᆞᆫ이 나비ᄅᆞᆯ 타고 가ᄉᆞᆷ이 다ᄒᆞᄆᆡ 시랑을 모셰 비에 올ᄂᆞᆫ 후 中原으로 향ᄒᆞᆯᄉᆡ 忽然 靑衣 동子 二人이 一葉 표舟을 타고 마조와 비을 뒤조치며 落淚禮ᄒᆞ여 曰 上公이 우리을 아시난잇가 ᄒᆞᆫ되 시랑과 大봉이 정아ᄒᆞ여 자셰이 살펴보니 年前에 水中에 ᄯᅥ빠질 ᄯᅢ에 와 求ᄒᆞ던 동子라 시랑은 ᄌᆞ계 求하던 동子을 불ᄅᆞ고 ᄃᆡ봉은 져봄 求ᄒᆞ던 동子 붓들며 치ᄉᆞ曰 大恩을 입어 고흥은 命이 다시 生ᄒᆞ여 후日을 다시 보지 못할가 려의하엿던니 이곳에셔 다시 만날 줄 ᄯᅳᆺᄒᆞ여스리오 ᄒᆞ며 불비치ᄒᆞ니 동子 답曰 昔事은 일너 쓸ᄃᆡ 업신이와 우리 大王계옵셔 上公父子을 모셔오라 ᄒᆞ시긔 至欸ᄉᆞ온에 잠時 枉屈ᄒᆞ서 려을 보두난니다 大봉 曰 우리 父子가 死命을 용王이 求ᄒᆞ심으로 生ᄒᆞ여ᄉᆞᆫ니 은혜 ᄇᆡᆨ골난망이라 水火라도 들나

하시면 피치 못ᄒᆞᆯ 것이로되 龍宮水府가 ᄀᆞᆯ리ᄌᆞᆯ나슨이 어찌 진세人이 入ᄒᆞ리
難ᄒᆞᆯ지라 ᄒᆞᆫ되 童子曰 小동等을 隨ᄒᆞ와 入ᄒᆞ舟옴을 념에 마ᄅᆞ시고 가ᄉᆞ이다 大봉
인父親이 여러年 苦초을 겻거시다가 다ᄒᆡᆼ이 父子相逢ᄒᆞ야 古国으로 回來차
난ᄀᆞᆯ뒤 만일 水府에 入ᄒᆞ오면 다시 나오기 難ᄒᆞ다 ᄒᆞᆫ이 侍郎曰 용王의 命이
나ᄂᆞᆫ 뒤에 우리 父子 엇지 ᄉᆞ졍을 인연ᄒᆞ니 一時 지체ᄒᆞᆯ리오 가기을 諾ᄒᆞᆫ니
동ᄌᆞ夫희 ᄒᆞ의 포舟에 모시고 순수간에 ᄒᆞᆫ 곳에 다이러ᄂᆞᆯ ᄡᆞᆯ펴 보이 黃金
天字로 西海龍宮水停門이라 두렷시 붓최씨ᄂᆞᆯ 天地廣闊ᄒᆞ고 日月이 明
朗ᄒᆞ되 이흠잣 坐진 世나 다름 업더라 이ᄯᆡ 용王이 졔신을 거ᄂᆞᆯ리고 문에 나와
시랑父子을 ᄆᆞᄌᆞ 졀니로 入ᄒᆞ며 賓主지에로 좌졍ᄒᆞᆫ 후에 용王이 ᄉᆞ례曰 과
인이 알ᄂᆞᆫ 上公라 將軍을 請ᄒᆞ여ᄉᆞ온이 황공감ᄉᆞ이라 ᄒᆞ거ᄂᆞᆯ 大봉水府

威禮을 察ᄒᆞᄂᆞᆫ 珊瑚柱에 호박주츄ᄯᅢ 유리벽에 슈졍주렴을 드리ᄒᆞ엿고 龍王은 五色花紋席에 金冠王帶로 남면이 좌ᄒᆞ고 左右諸臣은 ᄎᆞ례로 별좌ᄒᆞ엿ᄂᆞᆫ듸 거복승샹이오 민어判書오 도미承旨오 원新軍별쥬부ᄯᅡ 右將軍ᄉᆞᆷ은 좌양금ᄲᆞᆼ게 等物이 左右로 ᄭᆞᆯ녀ᄂᆞᆫ이 위ᄯᅦ 벌셧ᄒᆞ고 광쾌활ᄒᆞᆫ 로ᄌᆞᆷᄒᆞᆫ지라 大봉이 謝禮曰 小生의 父子殘命이 大王의 求ᄒᆞ심을 입ᄉᆞ와 至于今保存ᄒᆞ와ᄯᅡ이 恩惠白骨難忘이어ᄂᆞᆯ 이ᄃᆡ지 관ᄃᆡᄒᆞ시니 황공감ᄉᆞᄒᆞ오이다 龍王이 왈 관인이 德이 無ᄒᆞ와 南海国이 ᄌᆞ로 졈ᄂᆞ로 ᄂᆞᆷ은 광졍ᄒᆞᆫ 졍ᄭᅴ를 과인이 듯고져 ᄒᆞ노라 삼희 將軍을 請ᄒᆞ와 先이 보ᄒᆞ던 ᄯᅥ의 將軍은 ᄂᆞ은ᄋᆞ로 잇ᄭᅥ지 ᄯᅡᆯ고 南海로 ᄂᆞᆯ로ᄃᆡ ᄂᆞᆷᄋᆞᆯ ᄎᆞᆯ쳐 大鳳曰 小將이 本ᄃᆡ 才조 업ᄉᆞ고 處世風和之道라 엇지면 ᄒᆞᆯ지 不ᄒᆞᆫ 南海龍

王을 엇지 당ᄒᆞ오릿가 ᄆᆞᆼ은 下敎 如此ᄒᆞ시니 ᄒᆞᆫ번 戰場에 나가 소장의 힘을 다ᄒᆞ와 南海용兵을 물이치고 大王의 恩惠을 万分之一이나 갑플ᄭᅡ ᄒᆞᄂᆞ이다 ᄒᆞᆫᄃᆡ 王이 大喜ᄒᆞ샤 上將軍節鉞과 大元帥 인검을 주시며 精兵十萬을 조發ᄒᆞ며 當日出戰ᄒᆞ라 ᄒᆞ거ᄂᆞᆯ 大봉이 즉시 月각투구에 용인甲을 닙고 오추馬上에 두렷시 안ᄌᆞ 左상이 장졸 휘동하난 ᄲᅡ라 긔치검극 고각함셩 天地진동ᄒᆞ더라 ᄌᆞ명旗을 中央에 놉피 셰워 軍용이 嚴肅ᄒᆞ니 南海용 쥬을 엇지 근심ᄒᆞ리오 ᄒᆞ고 수일만에 南海에 다ᄃᆞᄅᆞ니 南海용王이 정兵을 거ᄂᆞ리고 ᄌᆞ흠을 도ᄃᆞ라 사구ᄇᆞᆫ장이 名을 ᄲᅥᆯ고 陣문 大開ᄒᆞ니 列장을 左右을 셰우고 용王이 쌍각투구에 金紋（문）甲을 닙은 天ᄌᆞ검을 두루며 크게 외여 曰 명장 이대봉은 들러라 너 진셰 쇽인은 무ᄉᆞᆫ 才조 잇관ᄃᆡ 용궁 大셰

을당하리오ᄒᆞ며칼버혀들어ᄂᆞᆯ大봉이青龍刀놉피들러는사ᄅᆞᆷ을
칠이웅王이몸을숨기고공中에올나風雨大作ᄒᆞ며咫（지）尺을分別치
못ᄒᆞᆯ네라大봉이風伯（魄）을불너풍우을쓸러부리고ᄃᆡ전을쏘치니
장졸의머리츄（秋）風落葉이라웅王이大봉의용맹을보고당치못ᄒᆞᆯ
줄알고馬下에나려降伏ᄒᆞ거ᄂᆞᆯ大봉이ᄭᅮ지져왈죠고만ᄒᆞᆫ강쇄을맛
고인국을침범ᄒᆞ니天道엇지無心ᄒᆞ리오만일다시범남ᄒᆞᆫ뜻슬두
면南海용卒을소멸ᄒᆞᆯ터인즉부듸외람ᄒᆞᆫ뜻슬두지말나ᄒᆞ고황
書을부든후에西海로도라오니용왕이멀이나와원슈을마ᄌᆞ궁中
에入ᄒᆞ여서랑과원슈을모실ᄐᆡ평연을배셜ᄒᆞ며풍악을갓초와三日
질검ᄒᆞᆫ후에서랑과원슈가려ᄒᆞ니용王이ᄲᅡ지못ᄒᆞ며金銀寶貝을

쥬미덜里나와쥐숑하더늘大奉이다ᄉᆞ양ᄒᆞ던다바夜光珠一사을바다訖
장에간유한후中負을차조（가）한（쉬）大龍王이童子을賂ᄒᆞ여日孟쥬로大
奉을好達ᄒᆞᆫ이고간눈발을아지못할너라頃삭간의한상면에大희띠
童子曰이곳쥔하향생이라읍즁이머지안ᄒᆞ니ᄒᆞ이관家로ᄎᆞ自간띤
自民中원으로차ᄌᆞ가오리다할門得간天읍거날大奉이시랑을보호馬
의모실ᄉᆞ何향成中에드리가리쟁에드리오리ᄒᆞ온ᄒᆞᆫ韓秦유ᄉᆞ各을
閑로一주시랑과平日즁馬世敎로知니든申海奉리랑시師大희ᄒᆞ여만규
에各歲을드리후관ᄎᆞ에드리간이친유大驚ᄒᆞ여슬에니뢰시師（郎）은을장
고當上에올나예필랑坐後에귀간고쇼을設化ᄒᆞ니飛會고징ᄒᆞ여
반가옵벌읏지稱良하리노릐유벼令大奉에名을장고當年에天子（者）계

옹琳그大의鍾弘을아知못호신天神니되와都으로앗와게时리吹飛上疏
을닥가黃城으로보니타한大시侍郞리을호에이피大奉으로호여수上疏을
닥가黃城으로前人保니고시郞父子와三弁그로리부터날마다普事乙ㄴ敬諭
하며上疏飛랑을거다리더라각設張負弁絹書乙닥가黃城으로보
니은三軍을上手後告陳围을셔는회軍호여오다가회음셩에
라ᄃᆞ라예판을밋느則接을도리겁날원弁业향事錄호고今接을
봉ᄒᆞ大事馬大將軍님이부上書有陳이라負弁大軍을會陰由城中에陳
~~城中[illegible]~~호고上疏을닥가則接과合同封호여黃城으로올여보
니시예관이올나가奉各호고今接과원弁의장매을올里겁날天者上
疏을보时이호여쓰되新接張위黃은돈弁[illegible]비호븜上宣二月을

댝가 国家無쌍知졍을 黃졔陛下에아외 용난이다 新接은 前할임 張샤에 女식으로 치ᄒᆞᆫ 몸미 龍門에 올나 벼살리 大太馬이시 郎에 去ᄒᆞᆫ후 出그ᄒᆞᆫ 天恩을 萬分知一이나 甲풀가 ᄒᆞ와뎐니 의외에 半졉 先禹筆셰 난을 만 ᄂᆡ 自원出戰ᄒᆞ와 외람이 大원슈人신라논 장軍졀월을 밧들은 戰將에 나가 ᄒᆞᆫ번 ᄡᅡ화 젹장을 버희고 셜우을 황복부다 ᄉᆞ오니 모도다 皇上의 널부신 덕이옵노이다 座흥이 유中 女子로셔 남복을 환착ᄒᆞ와 몸이 龍門에 올나 조졍 각위를 들리압고 리군ᄡᆞᄅᆞ거 죄을 지어섭리난 승상 왕희의 ᄒᆞᆼ을 피ᄒᆞ고져ᄒᆞ와 막되거 죄을 조쵸ᄒᆞ엿ᄉᆞ온이 복원 皇上은 널이 통촉ᄒᆞᆫ압소셔 座흥의 아비은 ᄇᆞᆯ 쥭子女옵后 다가 늣게야 술쎄 없난 座흥을 두고 시랑 이낙의 아들과 뎡혼ᄒᆞ엿숩던

이ᄂᆞ이 上疏ᄒᆞ다가 王희의 ᄎᆞᆷ송을 닙어 시랑 父子 졀도원찬ᄒᆞ옵고 산
쳡 아비은 조졍ᄉᆞ와 산쳡의 선세을 ᄉᆡᆼ각ᄒᆞ와 분을 이긔지 못ᄒᆞ여 졸지
에 痛이 들러 世上이 별ᄒᆞ온즉 산쳡의 어미도 아비을 ᄯᅡ라 一日之內에 구몰
ᄒᆞ압더니 산쳡의 一身이 고단ᄒᆞ와 의탁ᄒᆞᆯ 곳지 업ᄉᆞᆸ더니 능상 王희의 不의 거삼
을 시여 졔 아들 쳔연을 인연ᄒᆞ여 며ᄌᆞ을 보ᄂᆡ와 쳥혼ᄒᆞ옵거ᄂᆞᆯ 쳡 쳐안
이 혼ᄉᆞ을 仔셰히 보니 禽獸이 봉황의 ᄶᅡᆨ을 맛고 산쳡 고단ᄒᆞᆷ을 늣ᄭᅧᆯ
리 너겨 져 ᄌᆞ식 쳔연과 노복을 보ᄂᆡ여 五更深夜에 셩군작당ᄒᆞ와 산쳡의 집
시졍에 들러와 겁탈코져 ᄒᆞ거ᄂᆞᆯ 강약이 不同ᄒᆞ와 ᄌᆞ결코져 ᄒᆞ옵던이 시
비 난향의 구ᄒᆞᆷ을 닙어 다시 ᄉᆡᆼ각ᄒᆞ온즉 만일 죽ᄉᆞ오면 황天도라간 父母의 유
한과 졀도에 졍배간 지아비 원한을 신원ᄒᆞᆫ 셜치ᄒᆞᆯ ᄉᆞ람이 업ᄉᆞᆸ기로 마거

못ᄒᆞ와 남북을 환착ᄒᆞ와 졈을 써나 ᄒᆞᆫ죡노흔ᄒᆞ와 졈최 업사 단이라 ᄒᆞ고
맛ᄎᆞᆷ에 람섕네 이러ᄒᆞᆫ 죄에 ᄉᆞ붕인 조씨의 인ᄒᆞᆯ 람물 업어 七年을 의탁ᄒᆞ
옵더니 天恩이 罔極ᄒᆞ와 賤ᄒᆞᆫ 몸이 놉흔 문네 올나 벼살 되엿남 大원슈네 이
이러ᄒᆞᆫ즉 ᄯᅡᆨ되ᄒᆞᆫ 죄가 용납ᄒᆞᆯ 곳거 업ᄉᆞ거ᄂᆞᆯ 이제 大司馬 즉 諸ᄂᆡ 되옵신
이 황샹의 대탕이 ᄯᅩᆫ곤ᄒᆞ오나 신쳡의 罪은 더욱 至重하옵거ᄂᆞᆫ 셩고을 맛
ᄉᆞᆯ져 못ᄒᆞ오ᄲᅮᆫ 즉 請ᄒᆞ올 올이온이 伏願 聖ᄒᆞ온 간신 王회의 罪을 治ᄒᆞ여
朝廷을 ᄲᆞᆯ키시ᄂᆞᆫ 匡善의 慈뉵을 갑게 ᄒᆞ옵시ᄯᅥᆫ 신쳡이 欺君ᄒᆞᆫ 罪와 이
아의 父子 원찬ᄒᆞᆫ 닐을 용셔ᄒᆞ시와 피ᄎᆞ 生面ᄒᆞ게 ᄒᆞ여 주옵소셔 ᄒᆞ엿더
라 上이 람필 뒤 大경ᄒᆞᄉᆞ 左右을 도라보와 曰 女子 몸이 上將軍 되여도 덕을
순별ᄒᆞᆫ 날아에 셩공ᄒᆞᆷ은 古今에 드믄 이리로다 ᄒᆞ시셔 동찬을 ᄲᅡ지안이하

쓴이 만조百官이 뉘 아니 탄복ᄒᆞ리오 王희은 져罪를 짐작ᄒᆞᄂᆞᆫ 汗（한）出沾（첨）背ᄒᆞ며 面色이 土色 갓더라 天子 王희의 간詐함을 혜알련ᄂᆞ비라 上이 大怒ᄒᆞᄉᆞ 王희의 父子 벼살을 삭탈관즉ᄒᆞ여 금옥에 나누（囚）ᄒᆞ시고 使者을 無人島 白雪島ᄅᆞ 보내여 이아 父子을 解放ᄒᆞ여 不日上來ᄒᆞ라 ᄒᆞ시ᄂᆞᆫ 十三歲에 行官하야 장이황의 忠烈을 만도ᄒᆞ신후 각도 각읍에 忠烈각을 지여 일홈을 ᄡᅥ 나리ᄒᆞ시고 원슈의 上疏한 侯을 各邑 반포하ᄂᆞᆫ이 天下百姓이 歎복ᄒᆞ더라 ᄯᅩ 俐上송한후ᄂᆞᆫ 붓친 원슈의 장卒리 승쳡장군 모신 줄을 알고 더욱 두려워ᄒᆞ더라 각셜 무인도와 ᄇᆡᆨ셜도에 갓던 ᄉᆞᄌᆞ도라와서 랑라 大분의 ᄌᆞᆼ적이 모연함을 원슈ᄭᅴ 上達ᄒᆞ니 원슈 이 말을 듯고 大경실색ᄒᆞ여 다시 上表을 ᄒᆞ며 쓰되 신쳡의 ᄃᆞᆫ지 죄을 ᄉᆞᄒᆞ시고 서父와 거아비을 취방ᄒᆞ옵쓴이

방국ᄒᆞᆫ天恩을云필菩道복됴즈ᄒᆞ옵건이와시부와졔의비을상面할
가빌라련이양援가련소주의발을듯ᄌᆞ온즉嘉직이香年ᄒᆞᆫ다ᄒᆞᆫ
원寃새부이라ᄒᆞ온이죽ᄯᆞᆫ사람이라죽어쓰면ᄑᆞᆯ연水中원혼이되
엇쓰이水中古혼라시쳡셜驚이우ᄌᆞ거가궁치안이ᄒᆞᆯᄒᆞ리그신쳡이
이졔원혼을위로하여슈륙지을셜힝ᄒᆞ와신妾에ᄀᆡ근졍誠으로ᄒᆞᆷ
여今天地神明이하감케ᄒᆞ옵고감神힌박이ᄯᅩᄒᆞᆫ水中古혼을치우게ᄒᆞ
고죄호본니복원폐（ᄒᆞ）는특소죠갈ᄒᆞ옵쓰셔하여더라上이쇼ᄉᆞ를보시고ᄉᆞ
子의회보을드르시미시郎父子원사ᄒᆞᆫ멸궁치괴여거ᄉᆞ주시치졔을니리
옵시고白米五千石과牛양三百슈며장白紙五萬束과黃金三萬명이며
今録王捨萬兩을駄금ᄒᆞ신後괴웅入祭物을병行朝（조）ᄌᆞ首恩하라

하시이예조관원이治祭슈을차려가지고원슈陳中을니려오거날장大（쇼졔）의
하여축日에大軍을이쓸고호州셔에다다라강변의방부단을놉피뭇고후
里白沙場의장막을두（둘）너치고졔물얼排설ᄒᆞ셔강변암조에才을올녀
일月승신과天地神明이며부쳐山神前의正識을먼저드려방부영ᄒᆞᆫ
으로ᄒᆞ여수구낙세게모인도하열발원축슈한연後에龍神졔을할
려ᄒᆞᆯᄉᆡ강上에부게못려졔칭을빈설ᄒᆞᆫ後天者게셔소송ᄒᆞ신龍神졔슈
버려노코五色비단쏫칠지여ᄉᆞ면에쏘조연花大을일운後에서랑과낙군에
晝（쥬）夜（박열）ᄒᆞ여고위에모셔노코金박에돈을싸셔龍王의게폐白ᄒᆞᆯ金노의향을
피여황天古ᄒᆞᆫ을發원할셔관廣졔人는萬山편아ᄒᆞ고각處女승결얼
박남가소얼잉고木卓몸（염）不ᄒᆞ여인미卓不판셰陰보살과쓰두七成南두七成

은天自大비ᄒᆞ샤극낙門을열러연花世게을지財ᄒᆞ옵쇼셔ᄒᆞᄂᆞᆫ發원ᄒᆞ며장
少쥐목녹지게ᄒᆞᆫ男복은번고女복을입고쇼복올ᄆᆞ란장ᄒᆞᆫ졔셕에나으
가시랑연위의ᄉᆞ拜통곡ᄒᆞ며분향독츅졔ᄒᆞᆯ졔祝文에ᄒᆞ엿쓰되維歲
次某年某月某朔某日某日전에婦張씨은敢召告于顯考侍郞灵位前
에細〻冤（원）情을發원ᄒᆞ옵ᄂᆞ이다小婦의罪惡이甚重ᄒᆞ오며不孝莫大ᄒᆞ와
어려서定婚ᄒᆞ고육레을이루지못ᄒᆞᆷ은운물리스리ᄒᆞᆫ明天이不恤ᄒᆞᄉᆞ
父公계옵셔小人의참소을입ᄉᆞ와절도에앙（枉）駕ᄒᆞ신후에七年을消息이
杳然ᄒᆞ옵거든小婦男子의ᄒᆞᆼ식은용문에登ᄒᆞ엿삽（다）가닥됴을掃滅（쇼멸）하
착ᄒᆞ온후에皇上계奏達ᄒᆞ와父公을還国（ᄒᆞ쇼）尊顔을拜謁ᄒᆞ온후昏定晨
省을ᄇᆞ라삽더니不幸이절도에보니던使者回還曰절도에人跡이寂요

하다ᄒᆞ온즉 水中孤魂이 되시가 ᄒᆞ와 灵（령）位을 배셜ᄒᆞ와 謹以清酌ᄒᆞ온이
伏惟尊灵（령）은 祥事 尚饗ᄒᆞ씨러라 位祝文저이 郎君灵位前에 讀祝曰을
두다 室人張씨ᄂᆞᆫ 敢昭告于 顯夫李公子府君神位라 ᄒᆞ고 嗚呼라 明天이 살
파ᄂᆞᆫ 진實을 듯되신 정誠이 至極ᄒᆞ면 鬼神도 감흥ᄒᆞᆫ다 ᄒᆞ온이 妾의 薄（박）
命ᄒᆞᆫ 情曲을 細〻이 감動ᄒᆞ옵소셔 天地之間 萬物之中에 惟人이 最貴ᄒᆞ온이 유〻
ᄒᆞᆫ 灵魂이 明〻히 察ᄒᆞ소 年月日時 삼긔 生ᄒᆞ와 父母의 命令으로 金石ᄀᆞᆺ치 언
約ᄆᆡᄌᆞ 百年회老ᄒᆞᄌᆞ던이 前生此生 무合 罪로 相面成禮 못이루고 生이별
리되니 심에 蒼茫ᄒᆞᆫ 大海中에 白雲島가 何處是요 一年三百六十日에 晝夜와
로 祝手ᄒᆞ고 五更漢夜 답〻ᄒᆞᆫ 何明天임게 빌[illegible]ᄂᆞᆫ 夫婦相逢보라던이
黃天이 私情업고 暴恨이 成病ᄒᆞᆷ에 父母任ᄒᆞᆫ（具）不沒ᄒᆞᆫ즉 혈〻ᄒᆞᆫ 妾의 一身

가ᄌᆞᆼ하거ᄂᆞᆫ 양업슨 ᄒᆞᆫ 王石年이 곤한 흉의 몸을 무단이 취ᄒᆞᆯ랴고
寂〃ᄒᆞᆫ 깁흔 밤에 도젹니 침방에 들어 위협을 겁탈커ᄂᆞᆯ 흉의 身에 셔
샹ᄒᆞᆫ 즉 쌍ᄒᆞᆫ 살 何ᄯᅢ이 업ᄂᆞᆫ 흉음이 當ᄒᆞ되 後日을 기ᄃᆞᆯ나 ᄉᆞᆷ봉을 ᄒᆞᆫ
착ᄒᆞ고 東西南北 길샤 ᄉᆞ가 國恩이 망ᄒᆞᄆᆡ 天佑神助 何을 ᄯᅡ나 翰林
侍郎ᄭᅴ셔ᄂᆞᆫ 이 富貴功名 ᄯᅳᆺ시 업고 결ᄒᆞᆫ 報弁원이 ᄃᆞᆯ手 南棠手 난을
만나 死生을 무릅ᄡᅳ고 自願出陣ᄒᆞ야 ᄂᆞᆫ 賊兵을 쇼멸ᄒᆞ고 天恩을 갑흔
후에 家君을 신원ᄒᆞ고 夫婦相面ᄒᆞ자 ᄒᆞ더니 졀도에 갓던 使者 虐行ᄒᆞᆫ
도라온이 知早其死요 未知其生이라 死者도 원통커ᄂᆞᆯ 生者도 可憐ᄒᆞ다
嗚呼라 우리 家君 何月何時 別世ᄒᆞ라 莫龍의 ᄲᅧᆼ이 되여 ᄲᅧᆼ나 奇줄 원만
나 忠烈을 의논던사 赤壁江 太白 만나 騎鯨（긔경）ᄒᆞ리 ᄒᆞᆷ을 ᄡᅳ며 北海에ᄂᆞᆫ 蘇武（소무）만

나持節ᄒᆞ다是ᄯᅳᆫ가古国을ᄯᅥ나先제八年이지난거라歲月이無情ᄒᆞ여
紅顔이ᄒᆞᆯ刻ᄌᆞ제十里長沙白鴎들아네가ᄯᅳᆺ을靑鳥ᄯᅥᆫ우리의緣이
을ᄭᅳᆫ아日月星辰四海龍王地府王게비난이라이大봉와ᄒᆞᆫ은고ᄒᆞᆫ水中
을ᄯᅢᄒᆞ신英天世界ᄒᆞ라가ᄭᅦ서노ᄆᆞᆫ인說이ᄂᆞᆫᄒᆞᆫ을免던이ᄒᆞᆫ이라〃도
만나보게ᄒᆞ옵소〃서觀音勢至生佛님과염나大王德澤으로蓮花世界저
서로ᄉᆞ야ᄂᆞᆫ還生ᄒᆞ야此生以約이ᄌᆞ말고夫婦되게ᄒᆞ옵소셔江村에
鷄鳴聲은五更을재촉ᄒᆞ고碧空에걸닌달은서ᄉᆞᆫᄇᆞᆺ을ᄀᆞᆨ차ᄒᆞ이〃家한
君灵魂英天길리ᄯᅥᆺ샤도라비說와ᄉᆞᆯ辰회至一筆難記로세謹以清酌
庶羞儀伸奠獻 尙饗아리을ᄌᆞᄒᆞᆫ후에슬피앙天痛泣ᄒᆞᆫ니蒼天이無
光ᄒᆞ여水雲이寂寞ᄒᆞ고江水鳴咽열ᄒᆞ여波道不起ᄒᆞ여草木이含淚ᄒᆞᆫ

강부강비明ᄒᆞᆫ이 관光諸人 뉘안이 통곡ᄒᆞ되노 萬陳中에 곡成이 남ᄌᆞ
하건달贊 無 將軍、 韓通이들 於ᄊᆞ움ᄒᆞ되 軍中의 곡成陳同하온디 ᄡᆞ옴을 진
政 政ᄒᆞ옵시고 軍ᄉᆞ을 위로ᄒᆞ옵소셔 하선달소졔 곡成을 근치고 祭셕의
안ᄌᆞ 酒好을 너여 將卒을 好의 하던니 발里셔 곡成이 들이되 혹 大奉이
타ᄒᆞᆫ 혹 소졔 타부르매 울던 날 소졔 ᄡᆞ옴이 自然 미봉ᄒᆞ여 韓通을 불
너분ᄌᆞ曰 ᄌᆡ 곳大ᄉᆡ 우넌 사람이 필연 女人세 곡成이ᄂᆞᆫ 물ᄂᆞᆫ 男女ᄒᆞᆫ다뢰
오라ᄒᆞᆫ틔 한통이 奉名ᄒᆞᆫ 차ᄌᆞ 본즉 美女ᄉᆞᆼ 二人이 안ᄌᆞᆺ 울거날 그 女ᄉᆞᆼ을
다뢰 다 가장 박대ᄃᆞᆫ 거류ᄒᆞ여 ᄌᆞᄌᆞ온즉 소졔 곤이여기 女ᄉᆞᆼ을 將中오ᄂᆞ 청
하여 우던연고을 무르즉 女ᄉᆞᆼ이 伏地고曰 소승이 우ᄂᆞᆫ 바ᄂᆞᆫ 家君과 아ᄌᆞ을 生
각ᄒᆞ와 우致난이다 소졔 聞曰 너에 속리 긔어 大씨 쓰며 無新이ᄅᆞ 노가 君과 아ᄌᆞ 얼

伊별호던 어大寺에서 삭발 위승何知ㅣ면 한되여 난야 승속미즉 달르는 쇼회는 ○일을
半지라 니너에 우던 소리올 들은 주혜아를 일리이셔 무른니 진政을 錄後
治발고 自서리 발 한량 호ㅣ되 갓ㄹ 이안치ㅣ더 変精이 무론 大女승이 嫩曰 將軍
尊前事 담을 알외니 黄公何온나 이러틋 관곡케 下問 호옵時 이진精얼
옷知起발 호옵되 가쇼승의 聖名은 발者는 上제에 姓名은 의貞이 오삭
嚴한 寺은 奉明암이라 호옵ㅣ더 쇼승의 속家은 其州모란洞이옵고 上제
에 속家은 起州長民洞張시郞에 奴婢俾라 쇼승에 소리구 호와 일속가君과
子식을 죄疏에 甫니고 死生을 知못호와 晝夜눈물노 世月歲을 보니옵던
이옷 박게 흉도에 난을 만나 뫼靑숑구진身이 사라쓰엿옵ᄉ옵되 호사라
밋다가 가君과 阿兒子을 天幸으로 만나 볼가 호와 필安호여 간난 길의 奉明암 ○女

슨을ᄒᆞ나삭發髮ᄒᆞᆫ知ᄒᆞ오今五ᄂᆞ六色日년이今日將軍治祭ᄒᆞ시ᄂᆞᆫ日을九驚

ᄒᆞᆯ於ᄂᆞᆫ와샹다ᄀᆞ元~~帥~~帥씨忠閑이ᄋᆞᆫ事然乙侯샴고家君과子息이水中古혼

이되사ᄒᆞ여自然小會ᄂᆞᆷ푸멀ᄉᆡ댓知못ᄒᆞᆫ둥쏙ᄒᆞ며련이奪前에

今閏되야쓰이罪ᄉᆞ無덕이ᄀᆞ쇼이댱元帥精波에情申이안ᄀᆞᄒᆞᆫ목

이ᄇᆡ며ᄊᆞᆯ을못ᄒᆞᆯ강情申精神을진情ᄒᆞ며다時問日모한洞의起시다ᄒᆞᆫᄃᆞ家

君에奪流와子息에日홈은無어時ᄆᆡ~~國~~武申日노正族을어ᄃᆞ도간知ᄇᆡᆺ희ᄂᆞᆫ

되야난야女僧이大日家君은財~~卿~~侍郎李益이요아ᄌᆞ에日홈은大奉이랴ᄒᆞᆷ온

上疏ᄒᆞᆷ가無人白雲도랴ᄒᆞᆫ大王죙비한지ᄀᆞ우今八年의死生을아知못

하난이댱張쇼졔노~~僧~~僧의ᄊᆞᆯ을다듯긔前의목이ᄇᆡ며못ᄂᆞᆫᄊᆞᆯ리그려ᄆᆡ면고

僧이良夫人씨안이시온이ᄀᆞ梁夫人은나의시毋랴ᄒᆞ미앙페영듸려노

僧（僧）을부ᄅᆞ고통곡曰母親의형상이우ᄒᆞ여이大知참혹ᄒᆞᆫ줄을웃지아오릿
가박各쇼부은張쇼졔로쇼이다ᄒᆞ여거졀ᄒᆞ거ᄂᆞᆯ노僧이또ᄒᆞᆫ張쇼졔찬말을
둘이말의외말의아ᄒᆞ여붓들고통곡ᄒᆞᆫ은知라샹좌의負이張쇼졔에셤
음이셕고얼고말의喜ᄉᆞᄒᆞᆫ말의아하다又쇼졔ᄒᆞᆫ말을드르믜大驚大희ᄒᆞ
여앙되伏地통곡曰쇼婢（婢）는時婢（비）난향이라쇼졔웃知난향乙몰나보시낫잇가ᄒᆞᆫ大
쇼졔난향의손을잡고曰네형샹이우ᄒᆞ여쓰나안목은난향갓틋별의심ᄒᆞ여
던니뎨사삭髮ᄒᆞᆫ僧이되여이곳졔올줄뉘아라쓰리ᄒᆞ며슬되통곡ᄒᆞᆫ
이장上장下관光諸人이뉘안이눈물흘미지안이日음뎐라諸將등이쇼졔
을위로ᄒᆞ며진情何忍말권ᄒᆞᆫ난향은梁氏夫人을위로ᄒᆞ이슈곡成이곤칠
後쇼졔夫人을母셔장中에들어가米음을권ᄒᆞᆫ그간苦草을瑞조말할셔

반가의도층양음고술푸러도괴지윤신발빠다눈물리라쇼졔다시上疏ᄒᆞ여毋親
萬止事然을슈ᄃᆞᆯᄒᆞᆫ行軍ᄒᆞ여黃成을올나가려라잇倂天者时郎
父子일을後회ᄒᆞᆺ死生을아知못ᄒᆞ와곳王會을엄치고조ᄒᆞ시려이張
元帥帥가上疏을올여거날ᄯᅦ여본즉ᄒᆞ여止되申妄이好州降가의ᄌᆞ분륙
졔빈雲ᄒᆞᆫ無人白셜도올향ᄒᆞ여촌혼親祭ᄒᆞ옵다가삭發이위僧僧ᄒᆞ시
毋梁氏을싼느온니죽어련시부와家君셜밋난듯日희日飛何온니이는다
망극ᄒᆞᆫ黃皇上의德卓이로ᄃᆡ의그於ᄒᆞᆫ본ᄂᆞᆫ王會에父子ᄂᆞᆫ国家의간臣이
요申妄에외슈온니王會父子을멸ᄆᆡᄒᆞ와申妄이회軍ᄒᆞᆫ난中道라로何
逆ᄒᆞ시뎐申妄니젹將버이든장ᄉᆞ鋼釼으로王會父子을버히不公大天知
외슈을갑푸풀가ᄒᆞᆫ이라ᄒᆞ여려라上伊南波에鋼釼부관원을各ᄒᆞ여

王會父子을암暎ᄒᆞ여張負슈진中으로보니그제何時던나와감하향奏슈
에장ᄭᅴ와李大奉의上疏을올里거날衣列他見ᄒᆞ신니李大奉上疏에ᄒᆞ
엿쓰되罪臣李大奉은도슈百拜ᄒᆞᆸ고上家글月을닥가黃（皇）上浴하
에올里는이ᄃᆞ臣에父주에罪惡（吾）이知（皇）中ᄒᆞ와절도비소로가옹다사水로에셔
격군등에한을잃어臣에위미을먼져水中의뎟丑臣을또水中에셔地괴로
死ᄒᆞ게되ᄋᆞᆺ쇼던이ᄯᅢ참西海龍子가와셔求ᄒᆞᆯ일쇼와西亦地京에가
유知（에）니ᄭᅵ온즉廣활何（ᄒᆞᆫ）天地間의東西南北은分별치못ᄒᆞᆫ白雲도비
소가어듸미지알슈읍셔비소을차ᄌᆞ가지못ᄒᆞᆫ（옵）西亦天丑国金花（華）山白
雲암의ᄎᆞ八年을의ᄐᆞᆨᄒᆞ와던이ᄯᅳ흉노강승ᄒᆞ와中원乙巳로ᄃᆞ논주
臣子도리의분心이自發ᄒᆞ와질미리역乙도을가ᄒᆞᆫ山中셔나中원으

조中井는용다가농셔의일로於古韓將일등의공혼을ᄡᅡᄒ甲쥬얼웃
고또山神을ᄡᆞ나오조馬와安장을웃샹온이쾌활한긔운이날노
씩〻하용긔로黃城으로ᄂᆞ오다가화용도의당〻라三国적時의관운將
공혼을ᄡᅡ는폐ᄒᆞ게용셔金능으로피란ᄒᆞ신쇼식을듯슨관公의쳥龍
도을으러가지고晝夜銖夜都ᄒᆞ야金능의다〻ᄅᆞᆫ즉적병이萬山편野ᄒᆞ야
金능城을외워ᄊᆞ고곤박이自己ᄒᆞ여날부ᄒᆞᆫᄊᆞ음을이긔知못ᄒᆞ와미處黃皇
上의明을긔다리지못ᄒᆞ옵고필馬單鎗으로적陳의달녀드러에운군
ᄉᆞ을술러ᄇᆞ히며自稱忠의將軍이랑ᄒᆞᆫ적將無등당과通ᄒᆞᆫ슈을
버히온則胡王이도망ᄒᆞ야北海로가거날臣의ᄆᆞ음이즉胡王을ᄲᅡ조버혀적
병을함몰ᄒᆞᆫ後煥니읍时한뎐後의黃皇上陛下의大罪고ᄌᆞᄒᆞ올인ᄒᆞ여

胡王을 좃ᄎᆞ셜ᄂᆞᆫ 도의 이르於 胡王을 ᄲᅡ저버히 後 회（廻）先（船）ᄒᆞ여 黃城으로 도라
오고저ᄒᆞ옵던 길의 호（홀）然光風리 大作ᄒᆞ여 ᄇᆡ가 無변大海로 셔나가온즉 망〻
한 파도中의 우리 살의 을 빌라 올리 이사다ᄀᆞ 死ᄒᆞᆯ 줄만 알고 이셔더니 三日乙셔
다ᄒᆞ가 ᄇᆞ람이 근치며 天禹神軀ᄒᆞ여 ᄇᆡ가 스사로 외로온 ᄉᆞᆷ의 다키로 빈을 언덕
어 ᄆᆡ고 ᄉᆞᆷ中의 들ᄎᆞ가 木果實（실）을 슈어 먹상다가 한 사람을 ᄲᅡ나온즉 이 사람은
臣의 인이 미 臣의 의ᄡᅵ 李益옵던 又 地名은 無因都라 ᄒᆞ옵던 水中ᄲᅡ지 죽은 의미
을 다며 萬나온더 小子生각의 차마 ᄇᆞᆯ리 主못ᄒᆞ와 黃（皇）明乙 그다리 知못ᄒᆞ옵고
ᄒᆞᆷ起나쓰 ᄊᆞ온이 罪非事無得（이로）소이다 黃（皇）上의 과인 大德을 ᄇᆞᆯ라옵건이랑 숭상
王會ᄂᆞᆫ 国家의 奉ᄒᆞᆫ 일을 求安ᄒᆞᆯ 줄을 모ᄅᆞ옵던 黃（皇）上으로셔여 今半격
朝王의게 항伏ᄒᆞ시믈 권ᄒᆞᆫ 난거시 大亦부도으로 半격쇼 인이랑 만격을

버혀後人을正게코ᄌᆞᄒᆞ오니王회父子을小將前으로니러보내쥬시면臣의쳥
龍도조朝王버히ᄃᆞ를져ᄒᆞᆫ이라ᄒᆞ엿더라上伊보시겅울다시미일ᄒᆞ면ᄂᆞᆯ낭ᄀᆞᆫ
일ᄯᅢ반가와坐左右을도라보와갈와ᄉᆞ大짐이박知못ᄒᆞ여이미ᄒᆞᆫ忠臣을졀도의
보니고흉노의大變을만나사직이위ᄐᆡᄒᆞ엿더니李大奉의상을잉어필馬單身
으로젹병을헤치고젹장을버헤짐의슴한설求ᄒᆞ여무로사직을회복ᄒᆞ여쓰이
太奉의公을의논ᄒᆞᆯ진大降山을半分ᄒᆞ여도오히려부족ᄒᆞᆯ知라이사ᄅᆞᆷ의
鍾젹을아知못ᄒᆞ여天神이도으죨노ᄉᆞᆯ라더니中行이大奉을빗날쥴은지아
라ᄊᆞ리오ᄒᆞ시고王會을잡아보니ᄯᅢ大奉의ᄡᅡ음을의외로고조ᄒᆞ되張貞슈가소
ᄒᆞᆫ王會을니여발ᄂᆞᆫᄒᆞᆫ즉다갓듯公臣엔일半잇夫뉘게은장아보니고뉘계는안니
장은보니지못ᄒᆞᆯ소셰니운知ᄒᆞ여以조ᄒᆞᆯ리으간에秦父趙仁秦奏王曰李大奉

과張소리을黃城으로올나오라ᄒᆞ시던한곳디모일터이온이양인리同日同식의
上봉하와곳셔王會을니여쥬시며암의츠치하라ᄒᆞ시던조ᄉᆞᆼ을사하난리는上伊
올히이여러ᄉᆞ양處에飛랑을니러보니시고李益데빈살을도ᄃᆞ와牛右柱上을
례弁ᄒᆞᆫ李大奉으로大ᄉᆞ馬大將軍을봉ᄒᆞ여則妾을니리신니예관시晝ᄂ夜
拜都ᄒᆞ여하량의니뢰와미당과則妾을올里러날侍郎과大奉이라ᄉᆞ에나
가예만을마ᄌᆞ北향四拜ᄒᆞᆫ天恩은을妾ᄉᆞᄒᆞ여當日發行ᄒᆞ여黃城의올
나온니萬島百라官이十里許예나와연妾ᄒᆞᆫ天者ᄂ門박게나와ᄊᆞ지시는리
라侍郎과大奉이天者앙페나아가셔ᄂ大各ᄒᆞ온大上伊親伊大奉에ᄉᆞ온엳ᄌᆞ장고
궐內로드於家前坐ᄒᆞ시며酒육을니여侍郎乙권ᄒᆞ온大奉에公乙稱찬ᄒᆞ
시고曰참이明心若못ᄒᆞ여빌의父子을罪윤시실ᄒᆞ예보니고南關력과교胡

에大爕을맛ᄂᆞᆫᄉᆞ則이위ᄐᆡᄒᆞ게되와샤더니ᄯᅩ박게大奉에來咸멀잇어ᄉᆞ則은安
保ᄒᆞ여쓰되大奉에흉젹을몰나晝夜근心ᄒᆞ다가今日相封ᄒᆞᄃᆞ니엇지반갑지
安伊할쇠오경등은짐의朋心治못ᄒᆞᆷ을원망치말고忠誠을다ᄒᆞ여짐을都
으라ᄒᆞ신大承相과大奉이감격ᄒᆞ멀無ᄉᆞᄒᆞᆫ이上伊承相을도라보시며曰
경의壹身의덜리가득ᄒᆞᆫ멀본니짐의ᄡᅡ음이덕으미감하도ᄃᆞ八年을海
上고道無人地之에셔木寶을먹근간솜뎔保尊할계그형上이오직할ᄯᆡ이
졔딩을大ᄒᆞ되無류하더니이긔知못할쇠로다ᄒᆞ시며龍누을흘니시거날
承相이拜事曰强도正拜ᄂᆞᆫ臣의好生知德이온이成熱근뇌治ᄊᆞ오ᄉᆞ셔
上伊曰王事ᄂᆞᆫ일녀쓸셰읍건이와경의父子로ᄒᆞ여今졀도의원찬한일
은王會에참쇼을짐이살피知못하리라라王會갓튼간臣을그져두어셔난

賢臣을구治못하고괴로장차聞罪코조하야일ᄉᆡ나因하여먼이장남大元帥帥
張쇼져가보슈하리ᄂᆞᆫᄒᆞᆫ王會父子을니여달슈ᄒᆞᆫ평의아들리王會을니
의달슈ᄒᆞ니의大事馬와張貞슈을黃城을올ᄉᆞ오라ᄒᆞ여ᄒᆞᆫ곳ᄃᆡ모와노
코앙의죄治할ᄉᆞ라ᄒᆞ여쓰이길은관心할ᄉᆞ라ᄒᆞ여신大承相伊至（秦）曰臣의莫大한
罪을事ᄒᆞ신간臣을正법코조ᄒᆞ신이황公無知何와莫知쇼조쇼조쇼이라
臣의백셩을환슈ᄒᆞ옵신의외람한罪己ᄆᆡ게ᄒᆞ옵신이黃公감사ᄒᆞ여이ᄃᆞᄒᆞᆫᄃᆡ上伊
不尹ᄒᆞ시ᄆᆞᆫ察則ᄒᆞ멸才亨何時伊承相伊事録退身ᄒᆞ臣後大奉伊라
時主（奏奏）曰王會은ᄡᅵ다国家간臣ᄡᅮ이은이오라臣의외슈온이日時라도大前立
知何괴가어려옵ᄂᆞᆫ日時라도상見치못ᄒᆞ게사온이王會乙니여쥬ᄋᆞᆸ시면臣이남
에ᄎᆞ治할ᄉᆞ슈ᄒᆞ난이ᄃᆞ上伊의눈ᄒᆞᄂᆞᆫ王會父子乙평에處단大로할ᄉᆞ라ᄒᆞ시거ᄂᆞᆯ

大事馬退身ᄒᆞ여上夫로도라와南大門박긔張許의習지楹(영)을노코承相을
모신土地터將戚의坐正ᄒᆞᆫ後王會와뎍郡(軍)등을장아다졍ᄒᆞ라ᄒᆞ니ᄀᆞ욱
亞王會와뎍軍사공十如各乙다결박ᄒᆞ여장아드리거ᄂᆞᆯ大事馬大로ᄒᆞ여뎍軍
사공등乙와知뭐曰네놈더러뉘ᄯᆞᆯ乙든젹쇼의간은行차乙海水의셔길ᄡᅡᆨ
하여水中녀ᄒᆞᆫ伊하ᄂᆞᆯ리두렵知안니할줄다ᄀᆞ너의등흉惡ᄒᆞᆫᄆᆞ음으로한
壹리안이노필ᄯᅥᆫ지시ᄒᆞᆫ놈이잇슬쉬신이발오알외라ᄒᆞᆫ大사공과뎍軍등이曰
時의쥬曰小人등뎡뢰무지莫之ᄒᆞ와일을사知못ᄒᆞᆫ용乙承相明영乙그뎍지못ᄒᆞᆫ
와死罪乙지ᄯᅵᄉᆞ온나젹쇼의가시은行차乙水中의벗겨도王承相의분ᄃᆞ도너흔
일이옴은小人등이오날罪의民ᄒᆞ와쥭거도王承相의희乙잉으미온이萬本
쥭어도잘되을ᄲᆞᆫ싱응은이ᄂᆞᆫ니ᄃᆞ大事馬靑과의분乙이긔知못하여靑龍도

乙들於뎍軍들乙日（壹）合의버희고쥐호야가다時分乙曰뎍軍中의늘흔놈한느이길
박호건숄글니노흐라호엿쓰이그놈이언네놈이야한편으로안치라호든긔예九人
은모도스죵의니떼호유호（연）然後늘근뎍軍乙分乙曰너乙마저죽일거시로되덜박
한건숄글너노라한헌ᄲᆞᆯ리거득호여간命乙살니난니차後는賢心乙行호는悪
한물리의드지ᄲᆞᆯ乙호여白방호여물니治고ᄯᅩ王會乙강아드려괴下에솔난
餘僧（僧）大되昊亦부도宮호고悪호들（놈아）於보아라臣者되（여）나라乙셤陳大忠乙
다호여간뇌都知何미올귀ᄂᆞᆯ네놈은외람한며ᄲᆞᆯ리壹품의거호여夫은이
방극호숄乙모로고간臣乙處결호여国법乙착난케호며忠良乙모히호여
国家乙위秦케호니그罪은三足（族）乙멸호（여）도可호든늬지최참호여도부足
호건니와ᄯᅩ罪乙ᄅᆞᆼ財졀도비의로간은스람乙사공놈을로호여수동여水中에

너흐라, ᄒᆞ며 ᄉᆞ이 너 ᄀᆞᆺ흔 즁ᄒᆞᆫ 죡ᄇᆡᆨᄒᆞᆫ 몸은 세상에 엽ᄂᆞᆺ지라 더 천 엿ᄌᆞ오리사 두렵지 안이ᄒᆞ리오 흉노의 란을 天子의 위ᄐᆡᄒᆞᆷ이 시각에 잇거ᄂᆞᆯ 너 홀이 ᄲᅥ져 흣터라도 ᄒᆞᆷ을 ᄌᆞ랑ᄒᆞ며 ᄃᆡ兵ᄀᆞᆫ ᄆᆡᆨ을 시ᄉᆡᆨ은 ᄉᆞᆫ이ᄒᆞ고 勢ᄂᆞᆫ 궁ᄒᆞ여 황伏ᄒᆞ리ᄂᆞᆯ 승상에 너 ᄀᆞᆺ흔 大역不道가 위되엿ᄉᆞ리은 나의 충효도 역ᄃᆡ 내리버힘미더ᄒᆞ다 ᄲᅡᆫ 너ᄉᆞᆫ을 더올 천이 버히지 안ᄒᆞ며 분한 ᄆᆞ음은 푸지 못ᄒᆞᆯ 뿐이 보곰덜 賊을 엇지 ᄒᆞᆷ의 ᄒᆞ리오 ᄒᆞ며 元슈 친이 칼을 도ᄃᆞ 들고 완희ᄂᆞᆫ 벼히되 ᄒᆞ리ᄂᆞᆫ 승상이 ᄲᆞᆯ니 유曰 왕희의 죄상은 의논ᄒᆞᆯ 거시 ᄲᆞᆯ지무쳑 어도되 古人의 ᄲᆞᆯ솝에 원슈은 은혜ᄂᆞᆫ 셰 갑흐라 ᄒᆞ여ᄂᆞᆫ 이져 죽기, 어던 분심ᄂᆞᆫ 거라 물ᄯᅥ ᄲᆞᆯ 얼지라도 무ᄉᆞ 작간이 ᄂᆞᆺ샬 화ᄲᅡᆫ은 ᄲᅡ즉 ᄭᅩᆺ쳐ᄒᆞ여 그과 쳔젼ᄒᆞᆫᄂᆞᆫ 동정ᄂᆞᆫ 불ᄯᅥᆺ ᄒᆞᆫ 그ᄅᆞᆷ으라 하신대 元슈ᄂᆞᆫ 曰 父친 命令이 황공ᄒᆞ고 ᄒᆞ오나 너 ᄀᆞᄐᆞᆫ 간ᄃᆡᆨ을 ᄉᆞᆯ에 두면 약슈ᄂᆞᆫ 정계치 못ᄒᆞᆯ 거ᄉᆞ이 완희ᄂᆞᆫ ᄂᆞᆺ지을 ᄯᅦᄒᆞᆫ 소ᄅᆡᆺ가 승상 ᄯᅡᆯ 王희 죄상이 충신을 모히ᄒᆞ고 국가ᄂᆞᆫ 쟈ᄂᆞᆫ 쳬ᄒᆞ엿ᄉᆞᆫ이 고로 ᄆᆞᆺ당이 버ᄒᆞᆯ 거이 ᄋᆞᆫ되 그 간에 우리 父子ᄂᆞᆫ 모함한 ᄉᆞ졍이 ᄉᆞᆫ이 ᄌᆞ기 ᄌᆡ던ᄂᆞᆫ 네 죄은 ᄋᆞ 죽이리되며, ᄉᆞ졍ᄂᆞᆫ 셜치ᄒᆞᆯ 것ᄒᆞ며 후인의 비방이 ᄂᆞᆺ실던 ᄒᆞᆼ이 다시 장젼에 가ᄂᆞ달ᄒᆞ여 결도 원찬ᄒᆞᆫ 얼리 올흔이 불ᄂᆞᆫ 쟘한 ᄌᆞᆷ으라 ᄒᆞ셔거ᄂᆞᆫ 원슈 告曰 황上괴옵셔 王희 父子의 죄상ᄀᆞᆫ ᄉᆞ手ᄯᅡᆯ 뎌 맘의 쳐단하라 ᄒᆞ셔ᄉᆞᆫ ᄒᆞ고 ᄭᅦ셔ᄂᆞᆫ 이다 사죽ᄯᅡᆯ ᄒᆞᆯ 것 유ᄂᆞᆫ니다 ᄒᆞ며 유ᄶᅦ 미결ᄒᆞᆯ 지음에 문득 우리 ᄀᆞᆺ흔 소리 나며 일원 大장이 七星투구 ᄡᅳ고 문天갑 닙고 千里총

홍에 쳥웅도 뉴희롤 근말며 들러曰 上公은 누산져 모른건이라 ᄲᅡ닥 王희온 小쟝의 몰몽大

텬지원讎슈라 남의 손에 죽게 함이 不가ᄒᆞ옵거든 小쟝이 남의 ᄒᆞᆫ 上께 주달ᄒᆞ라 ᄒᆞᆫ 챵오

ᄃᆞᆯ 놀나 ᄒᆞᆫ 죄인의 최단하라 ᄒᆞ신 비쟝이 ᄂᆞ옵거든 이제 곱희을 나 엇거ᄂᆞᆯ 샹공은 무슨

일 上王희ᄅᆞᆯ 버히려 버하시나니 아져 못하옵건이라 小쟝의 ᄯᆞᆯ는 王희의 女子 뵈며 죄을

버혀 본을 ᄡᅵᆺ고져 ᄒᆞ옵ᄂᆞ니 샹공은 허물치 마옵소셔 ᄒᆞ거ᄂᆞᆯ 원슈 고이 너겨 문曰 장군은 뉘

시관ᄃᆡ 王희ᄂᆞᆫ 원슈라 ᄒᆞᄂᆞᆫ잇가 그 장슈 답曰 小쟝의 셔부와 가군이 王희의 휘ᄂᆞᆫ ᄇᆡ어 졀도에

원찬ᄒᆞ엿ᄉᆞ오니 텬지원슈 아니ᄂᆞ올잇가 元슈 笑曰 男子에 몸에 도 셔부와 가군이 나ᄂᆞᆫ잇가 쟝원

슈 答曰 小쟝은 본ᄃᆡ 男子 아니오 ᄲᅡᆨᄲᅡᆨᄒᆞᆫ 女子라 셔부와 가군의 원슈을 갑고ᄌᆞ ᄒᆞ여 화

뷔남ᄒᆞ여 두 군ᄃᆡ 장이 되얏다가 夫은 이ᄆᆡᆨ죽고 ᄉᆞ뢰ᄒᆞᆷ이 옵ᄂᆞᆫ문에 몸이 올나 부귀에 ᄊᆡᆺ시엿ᄂᆞᆫ

다만 보슈ᄒᆞ려 ᄒᆞᆫ 원이압더니 의외에 남젹 ᄉᆞ졍ᄒᆞ여 ᄇᆞᆫ방을 ᄎᆞᆷ노ᄒᆞ라 ᄒᆞ시거ᄂᆞᆯ 원出젼ᄒᆞ여 쳔공

ᄒᆞᆯ 놉길 뒤 ᄒᆞᆷ샹계 上公ᄭᅴ ᄒᆞ와 셔부와 가군의 원찬ᄒᆞᆫ 일은 원ᄒᆞᆫ乃 신ᄒᆞᆫ 졀도에 보시ᄒᆞᆫ

이 ᄎᆞᆷ담이 모연ᄒᆞ라 平生 水中 고魂이 될ᄯᅳᆺᄒᆞ더니 다시 황上께 주달ᄒᆞ와 王희ᄅᆞᆯ 버희

고ᄌᆞᄒᆞ여 곱되ᄅᆞᆯ 나온 걸 뒤도ᄉᆞ슈 上公께 쳡ᄊᆡ 王희ᄂᆞᆫ 죽이려 ᄒᆞ신다 ᄒᆞ오ᄂᆞᆫ 쳬면ᄂᆞᆫ

不고 쟝군 영춍에 돌엄ᄒᆞ여 ᄉᆞᆫᄉᆞ나 바라거더니 王희ᄂᆞᆫ 뇌예 유셔오면 小쟝이 ᄃᆡ두 버희런 ᄭᅳᆯ

노왕희ᄂᆞᆫ 버희어 원슈을 갑ᄉᆞ올 사하나니라 大ᄉᆞ마 大쟝ᄒᆞ여曰 쟝군의 셔부와 가군에 셩명

이 뉘시라 ᄒᆞᄂᆞᆫ잇가 쟝원슈 답曰 시부는 뎐시랑 이ᄉᆞ이압고 가군은 이디봉이압고 小쟝

은 뎌슈쟝 만종쟝 ᄒᆞᆫ 아내 사위 황이ᄋᆞᆸ소이다 ᄒᆞ되 大ᄉᆞ마 빗가슴을 참지 못ᄒᆞ여 크게

曰장슌졔분ᄆᆡᆼᄒᆞ니잇지뒤봉을나보ᄂᆞᆫ아슈슌졔의졍셩이지극ᄒᆞ여황天이감동ᄒᆞᄉᆞ水宋에
즈어던디봉이소쳔ᄋᆞ로시고쌍자ᄂᆞᆫ이슌졔은관심ᄒᆞ라ᄒᆞᆫ뒤소졔고졔아낭군인쥴알고을
던지며통곡曰잇지밧갓치신봉ᄒᆞᆯ가ᄒᆞ려ᄂᆞᆯ승샹이나거동을보ᄂᆞᆫ빨니쇼졔여에ᄂᆡ려소졔
衣의을붓들고통곡ᄒᆞᆫ즉에안부인이시비ᄂᆞᆫ향을다리고ᄒᆞᆫ편에모ᄒᆞ가大봉이ᄒᆞᆫ말을듯고
달려들어大슈을밧고통곡ᄒᆞ며기절ᄒᆞ거ᄂᆞᆯ승샹과원슈부인의모양ᄇᆞᆫ힐을보고의아ᄒᆞ
더이장슌졔다시쾌읍曰낭군은모친을모르시ᄂᆞᆫ잇가유쳡이水독졔을지날ᄯᅢ에모친이ᄉᆡᆨ발위
승ᄒᆞᄂᆞᆫ귀경ᄒᆞ시러왓스라가곱부ᄅᆞ봉ᄒᆞᆺ나이다그졔야원슈부인젼에업드려통곡曰
모친은ᄌᆞ식을아라보시되나ᄂᆞᆫ不孝ᄒᆞ와얼굴도못알라보왓ᄂᆞᆫ이승샹이션부인긔뒤
ᄒᆞ여쾌읍曰부인은날[illegible]을알라보ᄂᆞᆫ잇가八年지간에부인은승이되ᄂᆞᆫ현싹은원슈되여
금일상봉ᄒᆞᆯ쥴이와ᄯᅩᄒᆞ하쳐에셔만나시ᄯᅥᆨ꿈도못알라볼번ᄒᆞ여ᄯᅡᄒᆞ고슬피통곡ᄒᆞᆫ
니보ᄂᆞᆫᄉᆞ람이뉘안이슬허ᄒᆞ리오ᄎᆞ셜원슈王희긔잡지피曰너희조졍에ᄯᅡ쥬굴되엿으ᄂᆞᆫ원
을효라ᄒᆞ여조잔ᄆᆡᆼ을용셔ᄒᆞ노라ᄒᆞ며결박읍도ᄒᆞ여ᄂᆞᆯ놉ᄒᆞᆫ후다시황上계쥬曰
王희ᄅᆞᆯ무인도로안치ᄒᆞ고쇄ᄒᆡᆼ은白셜도로안치ᄒᆞ게ᄒᆞᆫ이上이그侯지러옥仁후ᄒᆞᆷ
을칭찬ᄒᆞ시며ᄯᅩ百官이任ᄒᆞᆫ二복ᄒᆞ더라天子승샹과장슌졔를ᄎᆞᆺᄒᆞᄉᆞ흉얼을흉
ᄎᆞᆫ曰장화사얼츅ᄒᆞ고쥬혼ᄒᆞᆯ리업다ᄒᆞᄂᆞᆫ이감이소졔●을위ᄒᆞ여쥬혼이되리라ᄒᆞ시고
太ᄒᆡᆨᄉᆞ빈ᄒᆞ여길日을ᄐᆡᆨᄒᆞ여ᄒᆞᆫ예ᄒᆞᆫ이위예ᄇᆡᆨ슈ᄒᆞᆫ이공쥬츌가ᄒᆞ난졀ᄎᆞ라ᄂᆞᆫ업더
라大ᄉᆞ마소졔을더부러교ᄇᆡ예을ᄆᆞ친후동방화쵹에녹안을숭뒤ᄒᆞᆫ야ᄯᅢ일을셜화
하며금침에나아가산ᄋᆞᆫ이원앙이녹슈에놀고[illegible]배취지낙을비ᄒᆞᆯ데업더라天子下교ᄒᆞᄉᆞ

승상 국뒤상 유乙 초왕乙 봉ᄒᆞ시고 양부인乙 정열뒤상왕후乙 봉ᄒᆞ시고 원슈乙 초왕乙 봉하시고 장쇼졔乙 忠烈王妃乙 封ᄒᆞ시니 원슈ᄉᆞ은 퇴조ᄒᆞᆫ 후에 ᄐᆡᆨ일 발ᄒᆞᆯᄉᆡ 위예 엄슉하더라 긔쥬古鄕에 이러ᄂᆞ 동老少人民乙 쳥ᄒᆞ여 슐노 ᄃᆡ연乙 ᄇᆡ셜ᄒᆞ여 즐긴 후에 장민동에 이러ᄂᆞ ᄒᆞᆫ앗부모 산소에 졔ᄒᆞ고 ᄉᆞᆫ창의 ᄉᆞᆫᄉᆞ졀리을 생각ᄒᆞ며 초王젼에 간曰 난한을 츙쳥乙 습아정乙 포ᄒᆞ라 ᄒᆞᆫ 뒤 초王이 ᄊᆞᆷ질못ᄒᆞ여 ᄒᆞᆫ쳥乙 승아 질리다가 발ᄒᆞ여 슈일만에 남최에ᄉᆞ 집에 당도ᄒᆞ니 효부인이 장원슈 옴을 보고 집手취읍曰 其間消息이 杳然ᄒᆞ러 ᄃᆞ날乙 져ᄯᅢ런 줄 얼라던이 今日이 갓치 ᄉᆞ봉ᄒᆞ조 ᄎᆞ 반갑거 ᄎᆞ양 업건이 와 며ᄉᆞ의 효ᄉᆞ을 엇지 ᄎᆞᆷ리오 ᄒᆞᆫ 뒤 장원슈ᄂᆞᆫ 폐曰 전후 셰셰ᄒᆞᆫ 원쳥乙 셜화ᄒᆞ고 초왕乙 전ᄒᆞ여 회소졔乙 후ᄉᆞᆯ乙 졍ᄒᆞᆫ 후에 효부인과 소졔乙 다리고 초국에 다다ᄅᆞ이 초국 ᄇᆡᆨ관이 ᄃᆡ후ᄒᆞ에 궁즁에 들어가 뒤상王왕후와 부실 별실 쳐소乙 각각 졍ᄒᆞᆫ 후에 ᄋᆞᆫ의 王초국 ᄇᆡᆨ관 ᄇᆡᆨ셩乙 다ᄉᆞ린이 초국 만조百官과 ᄇᆡᆨ셩들리 강구연월에 격양가乙 일숨더라

自古로 덕션하ᄂᆞᆫ ᄉᆞ람은 여경이 모ᄂᆞᆫ 故로 惡人乙 본밧거ᄒᆞ여 古書을 유젼ᄒᆞᆷ이라

大正四年陰三月初三日廣州退村面梧里洞金鍾順謄書

오자낙셔 만ᄉᆞ오니 보시ᄂᆞᆫ 분이 짐작ᄒᆞ와 보시압

男 산외 단

效 번브들 효

才 지조 지

良 어질 량

知 알 지

過 허물 과

必 반들 필

改 고칠 리

能 능흘 능

莫 말 막

忘

能

傳 過

[illegible]

# 李大鳳傳

大正叄年 陰二月 日

COLUMBIA UNIVERSITY LIBRARIES

This book is due on the date indicated below, or at the expiration of a definite period after the date of borrowing, as provided by the library rules or by special arrangement with the Librarian in charge.

| DATE BORROWED | DATE DUE | DATE BORROWED | DATE DUE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C28 (467) 50M | | | |